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 에 관한 北韓의 理論展開

梁 好 民

(朝鮮日報社 論說委員)

- | | |
|--------------------|------------------|
|<目 次>..... | |
| I. 古典的 命題 | III.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 |
| II. 過渡期의 權力：人民民主主義 | |

I. 古典的 命題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 및 이것과 표리의 관계가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에 관한 理論은 그 實踐上의 諸問題와 더불어 社會主義의 여러 分派 사이에서 격렬한 論爭의 대상이 되어 왔다. 論爭의 歷史는 짚며 심각하다. 그것은 19世紀 이래로 現在에 이르기까지 맘스主義와 無政府主義, 獨逸社會民主黨內의 左派와 右派와 中央派, 러시아의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스탈린과 뜨로츠키, 소련共產主義와 유고슬라비아共產主義, 소련共產黨과 中國共產黨, 西歐共產主義(eurocommunism)와 소련共產主義의 사이를 각각 잘라 놓은 중요한 이데올로기의 要因의 하나다. 그러나 本論에서는 고찰의 대상을 좁혀, 主體思想을 강조하는 金日成이 이 〈過渡期〉를 어떻게 규정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概念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맘스—레닌主義의 古典的 命題, 그리고 소련 및 中共의 觀點과 비교하면서 分析코자 한다.

코민테른(Comintern 1919~1943)의 全時期를 통하여 스탈린이 死亡할 때까지는 모스크바는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單一中心으로서 각국 共產黨을 엄격한 規律로 통제할 수 있었으므로 (1948年 이후의 유고슬라비아는例外) 맘

*北韓에서는 이것을 〈프롤레타리아獨裁〉라고 일반적으로 記述하고 있으나 이것은正確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北韓의 出版物을 引用할 때만은 그대로 쓰고 그밖의 경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는 用語를 사용키로 한다.

스—레닌主義에 대한 各黨간의 解釋上의 차이가 破局的인 이데올로기 紛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탈린死後, 즉 1956年 2月에 열린 소련共產黨 第20次大會를 기점으로 흐루시쵸프가 단행한 스탈린格下運動은 스탈린의 神的 權威를 파괴함으로써 필경은 스탈린이 구축해 놓은 모스크바의 權威까지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各國 共產黨의 모스크바 離脫의 욕구를 자극했다. 흐루시쵸프의 스탈린批判問題는 뜻밖에도 中·소의 두 共產黨사이에다 歷史的인 이데올로기 紛爭을 유발하여 國際共產主義運動의 통일을 파괴하고 共產主義의 이론바 多中心化現象(polycentrism)을 조성하게 되었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이 모스크바의 統制下에 있었던 시기에는 各國共產黨의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의 方式은 스탈린이 해석하는 맙스—레닌主義의 理論的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야 했고, 이것으로부터의 逸脫은 곧 〈左傾的〉 또는 〈右傾的〉偏向이라는 규탄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自身이 바로 그 후계자들에 의하여 公的으로 批判을 받고 그의 不可誤謬性은 個人崇拜의 한 측면이었음이 폭로되자 모스크바는 그 軍事的 占領國의 共產黨이외의 다른 共產黨을 통제할 權威를 상실하고 말았다. 더우기 중·소가 對立하여 서로 상대방의 共產主義를 허위요 배반이요 기만이라고 비방하는 상황에서는 각국의 共產黨들이 모스크바나 北京의 理論的 指針을普遍的 真理로서 반드시 추종해야 할 政治的 확신도 의무감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各異한 나라의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 〈社會主義下에서의 階級鬪爭〉,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 〈社會主義의 改造〉, 〈共產主義에로의 漸次的 移行〉등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맙스—레닌主義의 諸命題에 대해 각양한 해석을 내립으로써 自己를 正當化하고 社會主義에로의 〈獨自의인 길〉을追求하게 되었다. 金日成의 主體路線도 그중의 하나였다.

資本主義社會로부터 階級과 國家가 소멸된 共產主義社會에로 移行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는 革命에 의하여 國家權力を 탈취한 후 自己自身을支配階級으로 높이고, 資本主義制度를 폐결하고 資本家들이 소유하였던 生產手段을 수탈하여 社會化하고, 資本家의 반항을 억압하고 生產力を 더욱 發展시키고, 프롤레타리아트의 文化水準과 福祉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革命的 조치를 取할 過渡期的 期間,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期間을 필요

로 한다는 것이 맑스의 비준이었다. 그는 1850年에 프롤레타리아트의 階級的獨裁를 〈階級差別의 일반적 철폐에 도달하기 위한…… 必然的인 過渡點〉⁽¹⁾이라고 설명했고,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政治活動의 必要性과 階級의 폐지, 이와 더불어 國家의 폐지에 이르는 過渡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必要性〉⁽²⁾을 論했던 것이다. 맑스가 1875年에 《고타綱領批判》에서 資本主義로부터 共產主義에로의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와의 相應性을 처음으로 定式化한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資本主義社會와 共產主義社會 사이에는 前者로부터 後者에로의 革命的轉化의 시기가 가로 놓여 있다. 이 時期에 相應하여 政治上의 한 過渡期가 있게 되는데 이 過渡期의 國家는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的獨裁以外의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³⁾

맑스는 共產主義라는 概念을 〈第1段階〉와 〈보다 높은 段階〉로 區分하여 고찰하였지만 혼히는 이 두 段階를 단지 共產主義라고만 부름으로써 認識上の 혼란을 일으킬만 했다. 위의 설명에서 그가 말한 〈共產主義社會〉란 共產主義의 〈보다 높은 段階〉, 즉 完全한 共產主義 社會를 의미하는 것이오, 그리고 〈過渡期〉란 共產主義의 〈第1段階〉, 즉 레닌이 뒤에 와서 〈社會主義〉라고 부른 단계를 뜻한 것으로理解하는 것이 타당하다. 레닌의 說明은 아래와 같다.

社會主義라고 보통 불리우는 것을 맑스는 共產主義社會의 〈第1〉단계, 또는 낮은 단계라고 불렸다. 生產手段이 共有財產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完全한 共產主義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共產主義》란 말을 이 경우에도 사용해서 무방하다.⁽⁴⁾

그런데 그 후 맑스—레닌主義에서는 用語上의 區別을 염격히 하여 共產主義의 〈第1段階〉를 반드시 〈社會主義〉라고 命名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1) 『マルクス=エンゲルス全集』第7卷, 大月書店版, p. 86.

(2) 『マルクス=エンゲルス全集』第18卷, 前掲版, p. 262.

(3) Karl Marx,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1972 (Diez Verlag), S. 33.

(4) V. I. Lenin, *Selected Works*, Vol. 2, Moscow, 1967, p. 342.

資本主義社會와 共產主義社會의 中間에는 하나의 過渡期가 가로 놓여 있고 이 過渡期의 政治權力의 本質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는 規定은 맑스—레닌主義의 革命理論에서는 核心的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가 目的하는 바는 〈社會主義를 건설하려는 것……人間에 의한 人間의 착취의 기반을 제거하는 것〉⁽⁵⁾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의 時期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時期〉라는 말로써 政治權力의 측면에서는 社會主義=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라는 等式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社會主義政權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 없는 社會主義의 건설이란 있을 수 없다는 固定觀念이 共產主義者들을 지배해 왔다. 이 點에서 무엇보다도 맑스—레닌主義의 社會主義와 그 밖의 社會主義와의 根本的 差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過渡期가 끝나면 이에 相應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도 당연히 없어지는 것인가, 또는 아닌가? 過渡期는 프롤레타리아트의 政權수립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點에서는 맑스와 엥겔스, 레닌과 스탈린 모두가 일치한다. 그러나 過渡期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끝나는지에 관해서는 이들의 설명이 각각 相違하여 반드시 명석치는 않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종결에 관해서도 설명은 抽象的이다. 그리하여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이 프롤레타리아 政權의 現實的 課題로 제기될 때 理論上의 混亂이 일어나고 論爭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와 프롤레타리아 政權이란 결국 共產黨의 獨裁와 共產黨政權에 불과하다는 것을 러시아 10月革命 이후 현재까지 맑스—레닌主義黨, 즉 共產黨이 政權을 장악하고 있는 통칭 社會主義 나라들의 경험은 가르쳐 주고 있음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勞動階級全體의 獨裁 또는 政權이라는 순수한 意味의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나 프롤레타리아政權을 실현한 나라는 아직은 없다.

맑스와 엥겔스에 있어서는 過渡期란 곧 共產主義의 〈第1段階〉를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過渡期는 共產主義의 〈보다 높은 段階〉가 출현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論理的 귀결이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에 의하여 取할 過渡的 經濟조치——이를테면 私的 所有의 土地와 企業의 國家

(5) V. I. Lenin, *Selected Works*, Vol.3, Moscow, 1967, p. 197.

收容, 國營財產과 工場의 창설, 交通기관과 銀行의 國有化, 어린이들의 無料教育, 非衛生的인 주택과 貧民家의 일소, 都市와 農村의 差異 해소, 農業의 協同組合化 등등——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진행되는 過程에서 階級的 차별은 철폐되고 生產手段의 社會化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전망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짧은 期間의……過渡期〉가 지나가면 새로운 社會秩序가 可能하다⁽⁶⁾고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론 過渡期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들이 프롤레타리아 革命과 階級 없는 共產主義社會의 到來를 생각할 때는 항상 고도의 經濟一技術의 發展상태와 產業勞動階級의 압도적 成長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階級이 소멸되고 따라서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억압하기 위한 機關으로서의 國家가 死滅한 共產主義社會, 즉 共產主義의 보다 높은 段階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했다. 未來의 理想社會에 관한 유토피아 社會主義者들의 상세한 設計圖를 배격했던 이들은 물론 共產主義社會의 또 다른 유토피아를 그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共產主義社會의 定義를 여러 각도에서 시도했고 그의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 特징에 관해 여러 가지 指標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 代表的인 것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고타綱領批判》의 한 부분이다. 맑스는 共產主義의 第一段階는 겨우 資本主義社會로부터 출생했으므로 아직은 그 母體인 舊社會의 母斑(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共產主義의 보다 높은 段階에서 個人이 分業에 노예적으로 종속되는 상태가 없어지고 이와 더불어 또한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의 대립이 소멸된 후, 또한 勞動이 단지 살기 위한 手段일 뿐만 아니라 그 自體가 生活의 第1의 欲求로 된 후, 個人的 全面的인 發展과 더불어 生產力도 증대하고 協同的 富의 모든 源泉이 샘솟아 넘치게 된 후, 그 때에야 비로소… 社會는 그 깃발에 이렇게 쓸 수 있다——各人은 그 能力에 따라, 各人에게는 그 必要에 따라!⁽⁷⁾

共產主義社會의 이상과 같은 指標는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거의 盲信的

(6) Karl Marx, *Lohnarbeit und Kapital*, 1972 (Diez Verlag), S. 16.

(7) Karl Marx,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前揭版, SS. 24~25.

으로 계승된 후 世界의 모든 맑스—레닌主義政黨의 綱領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資本主義制度가 철폐되었다 해서 分業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生產이 多樣化해지고 技術이 發展하고 人間의 經濟領域이 확대되어 가면 갈수록 職種의 專門化와 作業의 細分化는 불가피한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技術과 生產活動의 多歧化를 전제로 하는 共產主義社會는 專屬的 活動분야와 分業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正反對로 맑스와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浪漫的으로 예측했던 일도 있다.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各人이 일정한 專屬의 活動 범위를 갖지 않은 채 자기가 좋아하는 分野에서 修業을 쌓을 수 있으며 社會가 全般의 生產을 규제한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일을 하며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家畜을 쫓고, 食後에는 批評을 할 수 있어 도 그렇다고 사냥꾼이나 漁夫나 牧者나 批評家가 되지는 않는다.⁽⁸⁾

科學技術이 고도로 발달하면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이 대폭 축소될 것은 예견할 수 있으나 人間의 육체로밖에 할 수 없는 勞動의 분야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모든 근로자가 다 전문가, 技術者가 될 수 있는 精神的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도 단순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더우기 아무리 生產의 거대한 發展可能性을 전제로 하더라도 〈各人에게 그 必要에 따라〉 生產物의 量을 社會가 통제할 필요가 없이 分配할 수 있다는 것은 空想에 가까운 일이다. 레닌은 그의 《國家와 革命》(1917年)에서 이 점에 관해 맑스를 변호하는 데 苦心하고 있으나 納得할 만한 설명은 못했다. 맑스는 그의老年에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工業化에 주목하여 이러한 보다 높은 단계의 共產主義社會에 도달하기까지의 過渡期를 短期間으로 예측했겠지만 그 過渡期가 어느 때 어떻게 끝나리라는 具體的 문제에 관해서는 해답을 주지 않았다.

레닌도 맑스와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共產主義社會를 〈第1段階〉와 〈보다 높은 段階〉로 구별하고 過渡期인 第1段階에 상응하는 政治權力を 프롤레타

(8) Karl Marx/Friedrich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1957(Diez Verlag), S. 50.

리아트의 獨裁라고 보았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는 맑스와 엥겔스가 過渡期를 비교적 짧은 期間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데 비하여 그는 〈상당히 長期의 過渡期〉⁽⁹⁾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맑스와 엥겔스가 프롤레타리아革命은 經濟的으로 발달하고 工業化되고 工業勞動者가 人口의 多數를 차지한 資本主義나라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과는 달리 레닌은 經濟的으로 後進國이며 工業勞動者의 數가 근소하고 大衆의 文化的 水準이 저급했던 러시아의 條件에서 社會主義革命을 수행해야 했던 때 문이다. 그의 전망에 의하면 後進國 러시아에서 社會主義社會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工業을 건설하여 經濟的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레닌의 전망에 따라 러시아를 비롯한 後進國의 共產主義운동에 있어서는 〈社會主義基礎〉建設이 共產黨政權의 第1次的 課題로 제기되게 되어 왔다.

극히 現實的인 革命家였던 레닌은 生產力이 과연 어느 정도의 높은 水準에 까지 發展하면 分業을 극복하고 勞動이 〈生活의 第1欲求〉로 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¹⁰⁾고 空論을 피하면서 〈國家가 死滅하는 期日이나 死滅하는 具體的인 形태의 問題는 전혀 未解決 그대로 남겨 놓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의 問題를 해결할 材料가 없기 때문이다〉⁽¹¹⁾라고 단언했던 것이다. 요컨대 過渡期가 언제 끝나는가는 레닌에 있어서는 요원한 문제요 당면한 關心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진급한 革命的 課題은 적어도 10月革命 후에는 社會主義社會를 건설하는 일 이었으며 이것도 역시 그에 있어서는 오랜 時日을 要할 과제였다. 1919年 3月 그는 말했다——〈社會主義를 건설할 벽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¹²⁾고.

레닌은 共產主義를 論함에 있어서 生產手段의 共有, 階級의 철폐, 人間에 의한 人間의 착취의 根絕 등 맑스와 엥겔스의 주장을 全面的으로 수용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맑스가 말한 共產主義의 第1段階를 〈社會主義〉라고 規定함으로써 맑스主義理論에다 새로운 概念을 도입했다. 그리고 자기의 〈社會主義〉를 그 밖의 社會主義者들의 社會主義와 염밀히 구별하고 자기의 것만이 唯一하고 真正한 社會主義요, 다른 것들은 資本主義의

(9) V. I. Lenin, *Selected Works*, Vol. 3, 前掲版, p. 197.

(10) V. I. Lenin, *Selected Works*, Vol. 2, 前掲版, p. 340.

(11) *Ibid.*, p. 341.

(12)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7, Moscow, 1965, p. 148.

小부르조아的 變容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레닌은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단계적 차이를 여러側面에서 論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原則的인 것은 共產主義사회에서는 〈各人에게 必要에 따라〉 生產物을 分配하는데 비해 社會主義사회에서는 〈各人이 수행한 勞動의 量에 따라 生產物을 分配〉⁽¹³⁾한다고 했다. 레닌의 이 定式은 뒤에 와서 스탈린에 의하여 〈各人에게는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 分配하다는 定式으로 다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레닌은 〈맑스가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全時期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¹⁴⁾고 쓰고 있지만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의 過渡期〉란 이 用語는 레닌의 창작이다. 그리고 이 過渡期를 때로는 맑스와는 달리 共產主義의 제1단계 까지로 인식했다. 스탈린 以來로 소비에트政權은 社會主義建設에다 중점을 두면서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는 프롤레타리아權力의 수립에서 시작하여 社會主義—共產主義社會의 第1段階—의 建設에서 끝난다〉⁽¹⁵⁾고 보다 명확한 概念規定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때의 社會主義建設이 어느 水準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며 社會主義建設이 끝날 때는 과연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도 끝나는 것인가는 계속 모호한 問題로 남아 있었다. 레닌은 未來의 共產主義社會에서는 〈各人은 그 能力 따라〉 勞動하고 〈各人에게는 그 必要에 따라〉 分配한다는 맑스의 原則을 되풀이하여 論했지만 共產主義의 상세한 유토피아는 그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비교적 냉철했던 레닌마저도 장차 共產主義가 世界的 규모에서 승리를 거두는 날에는 〈우리는 世界의 몇개의 大都市의 거리에다는 黃金製의 共同便所를 짓겠다〉⁽¹⁶⁾는 허황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를 論함에 있어서 레닌이 유달리 강조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絶對的 必然性과 暴力的 抑壓의 측면이었다. 맑스와 엥겔스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期를 階級敘는 共產主義社會에 도달하기까지의 過渡的 단계로 보았음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는 말은 극히 드물게 사용했고 흔히는 〈勞動階級의 政治的 支配〉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들이 프롤레타리아트 革命

(13)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4, Moscow, 1964, p. 84~85.

(14) V. I. Lenin, *Selected Works*, Vol. 3, 前揭版, p. 197.

(15) Academie des Sciences de L'U.R.S.S. Institut d'Économie, *Manuel d'Économie Politique*, Paris, 1956, p. 348.

(16)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33, p. 113.

을 말할 때는 勞動階級이 國民의 大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前提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 즉 労動階級의 支配를 多數派의 政治的 支配와 同一視했던 것이다. 그리고老年에 이르러서는 英國과 美國같은 나라는 労動階級이 普通選舉를 통하여 議會(下院)에서 多數議席을 차지함으로써 그러한 政治的 支配를 수립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다.⁽¹⁷⁾ 그리고 엥겔스는 労動階級의 政治的 支配는 〈民主主義憲法〉을 제정할 것임을 강조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政治機構로서는 빠리·꼬문(1871)과 같은 民主共和國의 形태를 理想으로 생각했던 것이다.⁽¹⁸⁾ 더우기 맙스와 엥겔스에서 注目되는 것은 이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労動階級을 지도하는 엘리트組織(前衛黨)의 獨裁로 간주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레닌도 맙스와 엥겔스에 따라 파리·꼬문이 프롤레타리아의 獨裁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社會主義革命은 少數 엘리트黨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한다는 立場에서부터 출발했던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부르죠아지와 그들의 反抗을 억압해야 할 必要性에다 항상 焦點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파리·꼬문이 실패한 原因의 하나는 부르죠아지와 그의 反抗에 대한 抑壓을 〈충분히 단행하지 않았던 點〉⁽¹⁹⁾에서 찾았던 것이다.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論의 기본적 특징은 労動階級의 敵對的 계급에 대한 獨裁的, 暴力的 억압의 측면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概念의 中心으로 만든 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그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獨裁란 직접 暴力에 입각한, 어떠한 法律에도 구속되지 않는 權力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的 獨裁는 프롤레타리아트의 暴力에 의하여

(17) 맙스는 1878年 9月末에 執筆한 論文 《社會主義者取締法에 관한 帝國主義討論의 概要》에서 〈英國이나 美國에서는 勞動者가 議會에서 多數를 차지하면, 그들은 合法的인 方法으로 그 發展의 장애로 되어 있는 法律과 制度를 철폐할 수 있을론지도 모른다〉고 議會를 중시하고 多數權에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マルクス＝エンゲルス全集』第34卷, 前掲版 p. 412.

엥겔스도 1891年 6月 18~29일에 쓴 《1891年の 社會民主黨綱領草案의 批判》에서 議會가 全權을 장악하고 人民의 多數의 支持를 획득하기만 하면 프랑스, 美國같은 民主共和國은 물론 英國같은 君主國에서도 〈낡은 社會는 平和的으로 새로운 社會로 成長移行해 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マルクス＝エンゲルス全集』第22卷, 前掲版 p. 240.

(18) *Ibid.*, p. 205.

(19) V. I. Lenin, *Selected Works*, Vol. 2, 前掲版, p. 298.

생취되고 유지되는 權力이며 어떤 法律에도 구속되지 않는 權力이다.⁽²⁰⁾

레닌은 이 無制限한 革命的 獨裁權力에 의하여 舊支配階級을 억압하고 위로부터 社會主義建設을 강행하고, 이 건설에다 大衆을 동원하고 〈資本主義에 包圍〉된 國土를 방위하면서 階級도 國家도 없는 共產主義社會를 실현하고자 했다. 여기서 〈指導的 役割〉, 즉 獨裁를 하는 것은 견고히 조직되고 綱鐵의 規律을 가지고 투쟁에서 단련된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部隊, 共產黨이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그 이름과는 달리 本質적으로는 共產黨의 獨裁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시 뒤에서 論及하게 될 것이다.

II. 過渡期의 權力 : 人民民主主義

古典的 맑스主義理論의 圖式에 의하면, 階級이 철퇴되고 모든 階級의 差異가 소멸한 共產主義社會로 移行하기 위해서는 封建制度를 전복하는 부르죠아 民主主義革命을 통하여 資本主義가 발달하고, 資本主義의 난숙한 발달에 따라 그 内在的 階級의 矛盾이 격화되고 그 결과로 프롤레타리아革命이 불가피적으로 폭발한다는 歷史的 경로를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現代社會는 부르죠아民主主義革命과 프롤레타리아社會主義革命이라는 各異한 두 단계의 革命을 거쳐 비로소 共產主義社會로 들어 설 수 있다는 이론바 二段階革命論을 歷史發展의 法則으로 定式化했던 것이다. 따라서 西歐社會에서처럼 資本主義의 성숙한 發展을 겪지 못했고 아직도 半封建的 生產關係를 보존하고 있는 後進國이 資本主義의 다음 단계인 社會主義에로 비약한다는 것은 社會發展의 客觀的 法則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資本主義가 덜 발달하거나 發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後進國에 있어서는 社會主義革命에 先行하여 부르죠아民主主義의 变혁이 먼저 요청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것은 20世紀初 帝政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強烈한 權力意志에 불타는 共產主義者들이, 後進國에서 工業化가 先進的 資本主義 나라들의 수준에까지 발달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부르죠아 革命의 임무를 부르죠아지에게만 일임한 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맑스主義에 있어서는 부르죠아民主主義革命의 목적은 經濟的으로는 資本主義를

(20) V. I. Lenin, *Selected Works*, Vol. 3, 前掲版, p. 49.

발전시키고 政治的으로는 부르조아階級의 國家權力を 확립하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이 自己들의 敵對의 經濟制度와 그것을 토대로 한 階級의 敵의 政治權力의 實현을 목표로 한 부르조아革命을 歷史의 發展法則이라고 하여 存在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政治心理上 불가능한 일이다. 客觀的 歷史發展法則과 主觀的인 權力意志간의 矛盾을 解결코자 제시한 것이 西歐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 즉 부르조아지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사실은 그 前衛로 자임하는 共產黨)가 指導權을 장악하는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을 주장한 레닌의 基本理論이었다.

레닌이 이러한 자기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論을 전개한 것은 1905年 1月 9日, 이른바 〈피의 日曜日〉의 大慘劇을 계기로 러시아에 反짜리즘의 革命의 불길이 퍼지고 있을 때였다. 그는 《民主主義革命에 있어서의 社會民主黨의 두개의 戰術》(1905年)이라는 論文에서 러시아의 당면한 革命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궁극의 目標(社會主義)를 위하여 이에 적극 加擔하면서 指導權을 장악하고 이것을 完遂해야 한다는 戰術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에서 러시아의 부르조아지가 主體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에 의하면 러시아의 自由主義의 부르조아지는 脆弱하고 불철저하여 동요하기 쉬운 存在이므로 革命을 수행할 의욕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革命的 階級인 프롤레타리아트가 指導權을 장악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數的으로 미약하므로 人口의 절대다수인 全農民과 同盟함으로써 이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半農奴制의 高 속에서 地主의 土地를 물수할 것을 바라는 農民의 革命性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가 도달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民主主義를 위한 戰土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農民大衆이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鬪爭에 합流하는 경우만이다〉⁽²¹⁾라는 結論이었다. 이 때에 부르조아지가 敵對勢力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동요를 막아야 하는 戰術이 필요했다. 한편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同盟者인 農民은 다 같이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의 담당자라고는 하면서도 革命의 指導的一決定的 역할은 프롤레타리아트(共產黨)가 수

(21)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9, Moscow, 1972, p. 60.

행해야 한다고 프롤레타리아트 第1主義를 고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指導下에 勞農同盟에 의하여 反짜리즘 革命이 승리할 때는 모든 反부르조아 革命勢力(皇帝, 大부르조아지, 地主等)을 억압하기 위하여 革命政權은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라는 기괴한 形容矛盾的概念에 의하면 이 獨裁는 부르조아지의 獨裁가 아님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로 될 수 없다. 여기서 農民을 支配階級에 포함시킨 것은 레닌主義의 특징이며 이것은 毛澤東을 거쳐 金日成의 政治戰術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와 같이 레닌에 있어서는 그가 주장하는 바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의 승리는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의 수립에서 실현된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는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은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革命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一時의 이요過渡期의任務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任務를 그는 〈絕對的으로〉 중요시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反動的〉이라고까지 말했으며,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社會主義에 接近할 수단이 없다〉고 단정했던 것이다.⁽²²⁾ 그리하여 레닌 이후에는 金日成을 포함한 거의 모든 後進國의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革命에先行하여 레닌式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을 실시한다는 綱領을 채택했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가 수립되면 다음의 日程은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革命이다. 이 段階에서도 革命의 指導權은 당연히 프롤레타리아트가 장악해야 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번에는 全農民이 아니라 그 중에서 貧農과 都市 및 農村의 半프롤레타리아트와 同盟을 맺어야 하고 中農과 小부르조아지가 敵對勢力(부르조아지 및 富農등)의 편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동요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繼起的인 두 단계의 革命戰術을 그는 다음과 같이 公式化 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暴力으로써 專制主義의 反抗을 타파하고 부르조아지의 動搖性을 無力化시키기하여 農民大衆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면서 民主主義革命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暴力으로써 부르조아지의 反抗을 타파하고 農民과 小부르조아지의 動搖性을 無力化

(22) *Ibid.*, p. 86, p. 112.

시키기 위하여 半프롤레타리아分子의 大衆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면서 社會主義革命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任務다....⁽²³⁾

이상 레닌의 2段階革命戰術에서의 특징은 매개 當面한 단계마다 主敵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것을 分쇄하는 동시에 動搖하기 쉬운 中間層에 대해서는 최소한 主敵을 둡지 못하도록 저지한다는 點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 승리하고 나면 오래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를 것을 〈즉시〉 프롤레타리아社會主義革命으로 轉化시킬 것을 집요하게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民主主義革命으로부터 즉시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름 아닌 우리의 力量에 따라, 즉 自覺 있고 組織된 프롤레타리아트의 力量에 따라서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永續的 革命을 주장한다. 우리는 中途에서 정지하지는 않을 것이다.⁽²⁴⁾

이상 레닌이 展開한 戰術의 특징을 簡約적으로 표현하면 그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은 부르조아지를 참가시키지 않는, 부르조아지의 말살을 目標로 하는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오, 프롤레타리아社會主義革命에 도달하기 위한 一時的 수단으로서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다. 또한 두 단계의 革命을 모두 無條件 프롤레타리아트의 指導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프롤레타리아트의 行動과 目標의 不可誤謬性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論은 本質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革命論이며,⁽²⁵⁾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로 자임하는 共產黨의 一黨獨裁論에 불과하다. 그리고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을 즉시 社會主義革命에로 移行시킨다는 것은 共產主義政黨이 그 말과는 달리 사실은 客觀的 社會條件 여하를 막론하고 機會만 있으면 權力を 장악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에서 社會主義革命을 강행한다는 것을 뜻

(23) *Ibid.*, p. 100.

(24) *Ibid.*, p. 237.

(25) 소련의 國定黨史는 레닌式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 〈프롤레타리아的인 革命〉이라고 明示한 것으로도 이것은 立證된다.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1960, Moscow, p. 97.

한다. 20世紀初 러시아에서의 革命戰術로 제시되었던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論은 第2次 世界大戰 후에는 소련軍의 영향하에 東歐와 아시아諸國에 수립되었던 人民民主主義政權의 理論的 토대가 되었다.⁽²⁶⁾

解放 직후 北韓에서는 소련軍 占領下에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불세비키化가 급속히 또한 體系的으로 강행되었다. 그리고 이 變革의 過程은 맙스-레닌主義의 理論으로 설명되어야 했다. 金日成은 1946年 9月 9日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에서 해방된 朝鮮의 現社會發展段階를 社會主義段階가 아니라 民主主義段階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늘 朝鮮의 民主主義의 계단(階段)은 결코 맙스·레닌主義를 떠나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맙스·레닌主義의 社會發展法則의 궤도 위에서 그 깃발 밑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오늘 朝鮮에 共產主義를 당장 건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共產主義者들은 오늘 國際・國內情勢와 朝鮮社會發展의 特性에 의거하여 朝鮮社會를 발전시키는 투쟁에 가장 積極的으로 참가하며 또한 모든 民主建設에서 가장 先鋒的인 역할을 다 하여야 합니다……맑스·레닌主義는 오늘 民主主義의 課業을 실행하는 데 반드시 적용되며 또 指針이 되는 가장 천지한 理論이며 무기인 것입니다.⁽²⁷⁾

이상에서 金日成이 강조한 民主主義가 레닌이 20世紀初 프롤레타리아 社會

(26) 人民民主主義를 理論화함에 있어서 소련은 그 第1段階를 〈反帝・反封建革命〉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의하여 수립된 政權을 〈프롤레타리아와 農民의 革命의 民主主義獨裁〉와一致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獨裁는 革命을 밀고 나가 革命의 第2段階, 다시 말해 社會主義革命에로 곧장 移行케 하는 것〉에서 그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人民民主主義의 第2段階는 부르조아 民主主義의 革命이 社會主義革命으로 成長轉化한 段階이며, 이 段階에서 人民民主主義政權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中共과 北韓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의 民主主義獨裁〉라는 用語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人民民主主義를 두 단계로 구분한 것과 각段階의 내용설명에 있어서는 소련의 理論과同一하다.

Académie des Science de L'U.R.S.S. Institut d'Économie, *Manuel d'Économie Politique*, 1956. Paris, p. 627.

(27) 金俊輝·金昌順外 共編《北韓研究資料集》第一輯, 1962年, p. 136에서 再引用. 이 구절은 1963年度 《김일성선집》 I(p. 103)에서는 〈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의 수행이 共產主義者들의 당면과업이라고 그 表現을 改作하였다.

主義革命의豫備的 단계로서, 戰術的으로 제창했던 부르조아民主主義(페닌은 간단하게 民主主義라고도 불렀다)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요, 西歐型 民主主義가 아님은 물론이다. 1945年 10月 13日 金日成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즘 民權이오. 民主요, 하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人民에게 權利를 주는 政治, 人民에게 主權이 있는 政治라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朝鮮에는 美國이나 英國式 《民主主義》가 맞지 않습니다. 西歐羅巴의 《民主主義》는 이미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것을 채용한다면 나라의 獨立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目的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外來帝國主義의 植民地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朝鮮에서는 朝鮮實情에 부합되는 새로운 進步的인 民主主義制度를 세워야 합니다. ⁽²⁸⁾

金日成은 다시 이것을 부연하여 〈오늘날 우리들의鬪爭은 資本主義國家의 낡은 國會式 民主主義가 아니라 새 朝鮮의 真正한 民主主義, 進步的 民主主義를 위한 鬪爭〉⁽²⁹⁾임을 선언함으로써 自己의 페닌主義의 입장을 은근히 시사했다. 그러나 그의 〈進步的 民主主義〉가 페닌의 戰術的인 〈부르조아民主主義〉와 어떤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일체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 그는 自己의 民主主義에다 〈새로운〉, 〈進步的〉, 또는 〈眞正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一般的 通念으로써 民主主義와 구별하기도 했지만 흔히는 그대로 〈民主主義〉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概念上의 혼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또한 그는 당시 〈부르조아民主主義〉(페닌의 意味의)라는 用語는 가급적 피하고 後進的 北韓에서 過渡的으로 追求하는 民主主義에다 〈反帝・反封建的〉이라는 이데올로기的 수식어를 부쳐 그 特性을 표시했다. 그리고 社會主義가 아니라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政權은 그에 있어서 理論上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이 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그는 단지 民主主義統一戰線에 입각한 〈人民政權〉으로 规定했던 것이다.

北韓에 주둔한 소련軍司令部는 돌연히 1946年 2月 8日 北韓의 〈中央主權機關〉으로서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창건하고 金日成을 그 수반에 앉혔다.

(28) 《김일성전집》 I, 1963년도판, 평양, pp. 9~10.

(29) Ibid., p. 177.

당시 北韓의 公式文書는 이에 대해 〈朝鮮歷史에 처음으로 人民의 政權을 創建하였다〉⁽³⁰⁾고 기록하고 있다. 南北韓을 통한 統一政府의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美·소共同委員會의 개최를 앞두고 形式的인 선거조차 거치지 않고 소련軍事當局의 정치계획에 의하여 비밀리에 急造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金日成은 1946年 8月 15日 〈全體人民의 意思와 利益을 真正으로 代表하는 中央主權機關〉⁽³¹⁾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였다.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창건 선포와 더불어 그는 同委員會가 수행해야 할 〈11個 當面課業〉을 발표했고同年 3月 23일에는 이것을 확대하여 《金日成將軍 20個政綱》이라는 것을 作成 발표했다. 《20個條政綱》은 앞으로 수립될 南北統一政府의 政綱이라고 해서 제시되었지만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이것을 〈自己活動의 指針〉으로 삼았다는 것이 公式 解釋이다.

〈20個條政綱〉은 〈日本統治의 일체 殘餘를 철저히 속청할 것〉과 〈反動分子와 反民主主義的 分子들과의 無慈悲한 戰爭을 전개할 것〉, 그리고 地主들의 土地를 몰수하여 小作制를 철폐하고 몰수한 土地를 農民에게 〈無償으로 分配할 것〉등을 선언하는 한편 民主主義의 諸權利와 個人的 財產을 〈法의 으로 보장한다〉고 했다.⁽³²⁾ 그러나 여기서는 非共產主義者들을 포섭하기 위한 政治戰術上 〈革命〉이니, 〈獨裁〉이니,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이니 하는 用語는 일체 회피되고 있었다. 《20個條政綱》을 기초로 하여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이름에서 소련軍政當局은 〈反帝·反封建의 諸般民主改革〉이라고 부른 일련의 改革을 단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1946年 3月 5일의 〈土地改革法令〉을 비롯하여 〈選舉法令〉(1946. 6. 4), 〈勞動法令〉(1946. 6. 24), 〈農業現物稅法令〉(1946. 6. 30),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1946. 7. 30), 〈主要產業國有化法令〉(1946. 8. 10), 〈個人企業의 創發力發揮에 대한 決定書〉(1946. 10. 4) 등이 발표, 실시되었다. 이러한 레닌의 〈民主改革〉(뒤에 와서는 혼히 民主主義革命이란 用語로 代替)이 이른바 〈社會主義의 前提條件〉을 창설하기 위한 일련의 過渡的 조처였음은 그 이후의 사태가 立證했다.

〈反帝·反封建의 諸民主改革〉에서 〈反帝〉의 대상은 日本帝國主義일 수는

(30) 《朝鮮中央年鑑》, 1949年度版, 平壤, p. 69.

(31) *Ibid.*, p. 155.

(32) *Ibid.*, pp. 66~67. ① 《20個條政綱》의 原文은 본래 극히 조잡하고 부정확한 表現으로 발표되었던 것인데, 休戰後에는 字句를 수정하여 비교적 세련된 표현의 文章으로 바꾸어 놓았다.

없었다. 왜냐하면 日帝는 이미 敗亡했고 韓半島는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條件에서 〈反帝〉는 日帝의 殘滓에 대한 투쟁으로 해석되었다. 그리하여 〈親日派〉와 〈民族叛逆者〉의 숙청은 절실한 民族的 課題로 제기되었고 日帝가 소유했던 產業施設과 그 밖의 財產의 國有化가 重要產業 國有化法令의公布 이전에 벌써 실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植民地的 질곡에서 벗어난 新生民主國家에서는 어디서나 名分上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共產主義者들은 敵對分子들에 대한 規定을 客觀的・合法的 기준에 의하여 내리는 것이 아니라 主觀的・政略的 기준에 의하여 내린다는 데 그들의 戰術의 의도가 숨어 있다. 당시 北韓의 共產黨은 〈親日派〉, 〈民族叛逆者〉, 〈大地主〉등 〈反民主主義分子〉를 규정할 때 사실상의 親日派나 大地主들 뿐만 아니라 共產黨의 路線에 맹종하지 않았던 愛國志士, 獨立運動家, 自作農, 知識人들을 모두 慷意的으로 이 카테고리에 집어 넣었다. 요컨대 共產黨路線에 批判的이나 회의를 표명하는 者는 民主改革에 역행하는 〈反民主主義分子〉로 규정,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反帝〉의 概念은 곧 확대되어 南韓을 〈强占〉하고 있는 〈美帝國主義者들〉에 대한 戰爭으로 그 強調點이 바뀌어 갔다.

北韓의 民主改革에 있어서 〈反封建〉은 側面은 經濟的으로는 封建的・半封建的 土地所有制, 즉 農村 小作制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社會・政治的 측면에서는 장구한 封建的 인습과 身分差別의 압박에 시달려 온 女性들을 이 모든 질곡에서 해방하는 것이었다. 前者は 土地改革의 실시에서, 後자는 男女平等權의 선포에서 표현되었다. 封建社會의 유물을 청산한다는 것은 제 2 次世界大戰 후 民主主義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던 東歐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當面한 共通的 課題였다. 그러므로 北韓에서 小作制를 철폐하고 自作農을 확립할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했던 土地改革의 실시는 그 自體로서는 당연한 民主主義的 要請이었다. 問題는 그 方法과 內容과 方向에 있었다.

反封建的土地改革은 링스-페닌主義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부르죠아民主主義革命의 任務〉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目的是 農民들의 支持를 얻어 모든 地主들의 經濟的 기반을 박탈하고 共產黨의 勢力を 강화하는 데 있다. 北韓에서 이런 目적이 일단 달성되자 農民들에게 〈永遠한 所有〉로 분배되었던 農土는 韓國戰爭이 끝난 1954年 부터는 農業協同組合, 즉 集團農場으로 강제로 統合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에 와서 農村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

로 불리운 이 集團化政策은 1958년까지는 모두 完成되었다. 土地改革이
장행되고 있던 당시에는 이것을 共產主義와 관련이 있다던가 集團農場制의
先行改革이라든가 하는 말은 民族叛逆者들의 惡質的 선동이라고 해서 염금
되었다. 그러나 農業集團화가 완료된 뒤에 北韓의 黨理論家들은 土地改革의
眞意를 밝힘으로써 金日成의 이데올로기의 일관성을 제시했다.

解放후 北朝鮮에서 실시된 土地改革은 基本적으로 부르죠아民主主義
革命課業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勞動階級의 영도하에 人民政權에 의
하여 수행된 이 土地改革은 農業生產分野에서 封建的 起租제도를 속청하
고 農村經濟의 自由로운 부르죠아的 發展의 길을 닦아 놓은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革命課業實踐에로의 移行을 위한 實質的前提條件을 조성함으
로써 점차 社會主義的 協同經濟로 발전할 수 있는 광활한 展望을 열어
놓았다. ⁽³³⁾

한편 男女平等權의 선언이 女性들에 대한 封建的 질곡을 제거한 사실을
否認할 필요는 없다. 解放이후 北韓의 女性들이開放되고 政治, 社會, 文化
의 각 분야에 대거 進出하여 男性과 平等한 地位를 획득하여 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男女平等에 대한 法令》은 選舉, 勞動, 教育의 諸分
野에서 男女의 同等權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變革이 現代民主主義의一般的
의原則에 부합되는 것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民主改革이 달성
된 것은 아니다. 이 《法令》에 의해 女性들은 男性들과 마찬가지로 選舉權,
被選舉權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후에 있은 北韓의 모든 선거는 共產黨이 미
리 決定하여 내세운 單一候補者에 대한 贊·反만을 묻는, 말하자면 選擇의
自由없는 스탈린式 選舉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러한 選舉에 男女가 동등
하게 參加한다는 것은 意義가 있는 일이 아니며, 그것을 진실한 의미의 民
主改革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男女의 同等한 參政權이 自由選舉와 더불어
보장될 때 비로소 反封建民主改革이 될 수 있다. 또한 《法令》은 女性들에게
男性과 〈同等한 勞動權利〉를 보장하였다. 이것은 女性을 男性과 同等한 労
動에 동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女性들은 鎳山, 工場, 伐木場, 運輸事業,
集團農場에서 男性과 더불어 肉體的 能力を 능가하는 고된 重勞動과 時間外

(33) 《조선통사》(하), 1958년, 평양, p. 36.

勞動, 地下勞動에 종사해야 했다. 그리하여 反封建的 民主改革으로 구가되는男女平等權의 선포에는 女性的 労動力を 대량동원한다는 별개의 目標가 숨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金日成(사실은 소련의 軍事當局)은 처음에는 政略上의 위장의 필요에서 〈民主改革〉이니, 〈民主主義國家建設〉이니 하는 온건한 用語를 사용했지만, 共產黨의 權力이 강화됨에 따라 이것은 〈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이란 말로 바뀌고, 다시 뒤에는 〈人民民主主義〉라는 概念으로 理論化되었다. 그런데 全能한 스탈린도 人民民主主義理論에 관해 1948년까지는 이 用語를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1945~47年사이에 소련, 東歐, 中共에서는 人民民主主義에 관한 각양한 理論이 속출하여 國際共產主義運動에다 이데올로기上の 混亂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티토가 스탈린에게 反旗를 들고 모스크바를 이탈하게 되자(1948. 6) 이데올로기의 混亂은 政治的 混亂으로 轉化되어 갔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스탈린은 1948年 12月 불가리아의 디미트로프(G.Dimitrov)를 통하여 人民民主主義의 理論體系의 定立을 시도했다.

디미트로프는 스탈린의 教示를 따라, 人民民主主義理論을 帝國主義陣營 反對,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 共產黨의 指導權, 소련의 優位와 指導, 소련의 衛星國統制, 民族主義에 대한 戰爭, 社會主義에로의 移行等을 강조하는 면으로 전개했다.⁽³⁴⁾ 특히 여기서 注目을 끄는 것은 人民民主主義政權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機能을 수행하는 政權〉으로 규정한 點이다. 그리고 흐루시쵸프 時代에는 스탈린의 理論을 보다 精巧化하여, 人民民主主義革命을 두 단계로, 즉 第1段階와 第2段階로 정연하게 區分하고, 第1段階(1945~1948)를 反帝・反封建革命, 즉 새로운 型의 民主主義革命으로, 第2段階(1948年 이후)를 社會主義革命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人民民主主義國家는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移行期의 〈中間的, 過渡的 形態의 國家〉요, 〈그 初期段階의 國家는 아직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아니며…… 그 階級的 本質로 보아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라고 레닌의 獨특한 公式에 따라 해석했다. 그리고 勞動階級과 그 政黨(共產黨)들이 統一前線 안에서 完全히 指導權(獨裁權)을 장악한 후, 즉 第2段階에 이르러서는 人民

(34) *Pravda*, 1948年 2月 21日字.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1, No. 1, pp. 32~34에 依據.

民主主義國家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機能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第2段階의 人民民主主義를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民主主義〉⁽³⁵⁾라는 최종解釋을 내렸다.

人民民主主義理論에 관해 소련과 東歐에서는 각양한 해석이 나와 論爭이 벌어져 오다가 1948年 12月에야 스탈린의 教示에 따라 統一된 理論이 구성되어 일단락을 짓는 동안 北韓에서는 하등의 獨自的 해석도 내놓은 일이 없었다. 金日成은 1945~47年頃에는 단지 〈諸般民主改革〉 또는 〈反帝・反封建的民主主義革命〉이란 用語만을 반복했고 그 내용은 소련의 學者들과 특히 毛澤東의 理論을 단편적으로 복사한데 불과했다. 그 당시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人民民主主義에 관해 獨自의 理論을 내세울 知的能力도 없었고 이데올로기解釋의 自由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人民民主主義에 관하여 처음發言한 것은 1948年 4月 29일 소위 《南朝鮮 新聞記者와의 담화》에서의 일이었으며 아직 이 때에는 어색하게도 〈人民的 民主主義〉란 用語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人民民主主義와 共產主義를 관련시키는 것은 帝國主義者들과 各種反動分子들이 만들어낸 〈幻想〉이란 點에 力點을 두고 있었다.⁽³⁶⁾ 그에 의하면(1947. 8. 14) 北朝鮮에서 人民委員會가 成長하고 있다고 해서, 土地改革을 실시했다고 해서, 또는 產業이 國有化되었다고 해서 北朝鮮에 共產主義가 실시된다는 것은 民族叛逆者, 親日派들의 〈發惡과 惡夢에서 나온 잠꼬대〉요, 〈發惡의 惡宣傳〉이오, 〈發惡의 惡煽動에서 나온 잠꼬대〉⁽³⁷⁾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惡宣傳〉을 격렬하게 비방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北韓의 불세비키化政策을 對外的으로는 끝까지 〈進步的인 民主主義〉로 위장하려 했던 것이다.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1947年 2月 스탈린式 〈民主選舉〉를 통하여 北朝鮮人民委員會로 바뀌었고, 이것은 다시 1948年 9月에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으로 변전했다. 이러한 政治發展過程에 대해 당시 北韓에서는 명확한 이데올로기的 說明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 더욱 強化된 人民政權〉云云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北韓政權의 각 발전단계의 性格을 人民民主主義의 이데올로기로 규정한 것은 休戰 후, 즉 1956年 4月에 개최된 朝鮮勞動黨 第3次大會 이후의 일이었다. 金日成은 이 大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5) *Fundamentals of Marxism*, 1963, Moscow, pp. 533~534.

(36) 《김일성선집》4, 1954년판, 평양, p. 50.

(37)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1949년, 평양, pp. 391~395.

…1946年 12月에 조직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거대한 役割을 하였습니다.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勞動階級이 영도하는 勞農同盟에 기초하여 國內의 광범한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力量을 망라하고 있는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에 입각하고 있는 人民政權으로서 人民民主主義獨裁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³⁸⁾

여기서 注目을 끄는 것은 金日成이 毛澤東의 造語인 〈人民民主主義獨裁〉(原名；人民民主專政)란 말을 사용한 點이다. 毛澤東은 1945年 이후 소련과 東歐에서 새로 나타난 人民民主主義라는概念을 자기가 1939年 12月에 처음 제시한 〈新民民主主義〉의 개념에다 일치시켰다. 그리고 人民民主主義革命의 第1段階를 反帝·反封建的 革命으로, 第2段階를 社會主義革命으로 規定하였다. 이 點에서는 中共과 소련의 人民民主主義理論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련이 人民民主主義政權의 第1段階를 1905年 레닌이 제시했던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와 同一視한 데 비해 中共은 이 단계를 毛澤東의 獨創의 用語와 概念인 〈人民民主主義獨裁〉로 규정하였다. ⁽³⁹⁾ 이 두 獨裁의 概念上의 差異는 前者가 統一戰線의 形成에 있어서 러시아의 中·小부르조아지를 民主主義革命勢力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따라서

(38) 《김일성선집》4, 1960년도판, 평양, p. 446.

(39) 毛澤東이 〈人民民主主義獨裁〉란 用語를 처음 사용하고 그概念을 밝힌 것은 北京政府의 수립直前인 1949年 6月 30일에 發表한 그의 論文 《人民民主主義獨裁를 論함》에서 였다. 여기서 그는 中國의 現段階에서의 人民을 〈勞動者階級, 農民階級, 都市小부르조아지 및 民族부르조아지〉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帝國主義走狗, 즉 地主階級, 官僚부르조아지 및 이 계급들을 代表하는 國民黨反動派와 그 共犯들〉에 대해서는 專制와 獨裁를 실행하여 이들을 억압하는 한편, 人民內部에서는 民主主義制度가 실시되며 人民들은 言論, 集會, 結社의 自由의 權利를 가진다고 했다. 〈이 두개의 側面, 即 人民內部에서의 民主主義의 複雜派와 反動派에 대한 獨裁의 複雜을 서로結合시킨 것이 곧 人民民主主義獨裁〉라고 規定했다. 《毛澤東選集》(一卷本) 1969年, 中文版, 北京, p. 1364. 金日成은 이상과 같은 毛澤東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一例로 그는 1947年 2月 1일 한 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毛澤東同志가 《人民民主主義獨裁》에 관한 자기의 著書에서 말한 바와 같이 人民政權은 反動的 親日派 및 기타 帝國主義走狗, 民族叛逆者들과 또한 帝國主義勢力を 부식하려는 地主 및 隸屬資本家들에 한해서는 獨裁를 실시하며 人民自體에 한해서는 民主制度를 실시한다〉고. 《김일성선집》4, 1954년도판, 평양, p. 45.

그러나 主體思想을 강조한 이후로는 人民民主主義란 歷史上 처음으로 才能의 有理論家인 金日성이 獨創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의 以上的 文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毛澤東의 이름을 삭제하여 이것이自己自身의 생각인 양完全히 改作해 버렸다. (《김일성저작선집》1, p. 334.)

그들의 역할을 무시한 데 대해 後者는 中國의 民族부르죠아지를 革命勢力의 하나로 간주하고 統一前線內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강조한 점에 있다.

소련은 中共의 第1段階의 人民民主主義政權을 毛澤東式으로 〈人民民主主義獨裁〉라고 부른 일도, 公認한 일도 없었으며, 한편 中共은 그政權이 러시아式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의範疇에 속한다고 인정한 일이 없다. 이 초기의 미묘한 소련—中共간의 이데올로기上의 差異는 兩者간의 은연한 政治的 對立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中共은 그이데올로기의 獨自性을 내세워 소련의 政治的 干涉을 피하려고 한 데 反하여, 소련은 中共이 그 獨自性을 강조하는 方法으로 소련의 權威를 추종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이 兩者 사이에서 金日成은 毛澤東의 造語요, 獨創的概念인 〈人民民主主義獨裁〉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北韓의 公文書에서 人民民主主義政權을 소련式 해석대로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와 同一視한 일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 이것은 共產主義者들이 인식하는 당시의 北韓의 社會發展段階와 國際環境(反美闘爭)이 中國의 그것과 흡사했던 點도 있었겠지만 韓國戰爭을 계기로 中共軍이 北韓에 주둔하게 되면서 毛澤東의 理論的 영향이 北韓에 파급되고 있었던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金日成은 第3次 黨大會에서 勞動黨의 〈領導 밑에〉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의하여 〈民主改革이 실시된 結果 共和國北半部에서는 人民民主主義制度가 확립되었고……社會主義基礎를 위한 物質的 條件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1947年 2月에 수립된 北朝鮮人民委員會는 그러한 物質的 條件 위에서 〈점차 社會主義에로 넘어가는 過渡期의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⁴⁰⁾고 言明했다.

勞動黨 第3次 大會 바로 1年前인 1955年 4月 그는 《모든 힘을 祖國의 獨立과 共和國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建設을 위하여——우리 革命의 性格과 課業에 관한 태제——》를 발표할 때 8·15解放 직후에 수립된 北韓의 〈人民政權〉이 〈反帝·反封建의 民主革命의 과업〉을 모두遂行한 후 〈北半部人民들은 社會主義에로 移行하는 過渡期에 점차로 들어서게 되었다〉⁽⁴¹⁾고 言했다. 그러나 그는 그 〈人民政權〉(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을 아직 人民民主主義政權이라

(40) 《김일성 선집》 4, 1960년도판, 평양, p. 446~447.

(41) *Ibid.*, pp. 197~198.

고 規定하지는 않고 있었다. 黨第3次大會에서 처음으로 그는 民主改革이 실시된 결과 北韓에는 〈人民民主主義制度〉가 수립되었다 했고, 바로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北朝鮮人民委員會의 수립으로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의 政權, 즉 北朝鮮人民委員會는 맑스-레닌主義의 理論에 따른다면 本質上 당연히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 때에 北朝鮮人民委員會를 단지 〈더욱 強化發展된 人民民主主義政權機關〉⁽⁴²⁾이라고만 말했을 뿐 이것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이라고는 規定하지 못했던 것이다.

北韓에서 전개되어 온 政治發展의 각 단계에 대한 金日成의 事後解明이 이렇게 더디고 있었던 것은 人民民主主義革命理論을 어떻게 해석하고 北韓에 適用할 것인가에 대해 自信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을 示唆한다. 오늘 北韓에서 통용되는 人民民主主義理論의 골격이 형성되고,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下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明示的으로 설명한 것은 第3次黨大會 이후의 일이었다. 1958年 9月 科學院 歷史研究所에 의해 발표된 《조선통사》(하)는 北韓의 政權發展段階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1)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1946年 2月) :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勞動階級이 영도하는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에 입각한 人民政權으로서 人民民主主義獨裁의 機能을 수행하는 政權이었다.〉⁽⁴³⁾
- (2) 北朝鮮人民委員會(1947年 2月) : 〈北朝鮮人民들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機能을 수행하는 北朝鮮人民委員會의 指導下에 ……社會主義로 移行하는 길에 들어섰다.〉⁽⁴⁴⁾

이로부터 다시 10년 후인 1968年 9月 金日成은 人民政權의 發展段階를 설명할 때 北朝鮮人民委員會는 〈社會主義로 넘어가는 過渡期의 任務를 수행한〉, 北韓에서 탄생한 〈첫 프롤레타리아獨裁政權〉이었다고 언명했다. 그리고 1948年 9月에 창건된 〈共和國政權은 첫 날부터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機能을 끊임없이 強化하면서〉 勞動黨의 指導下에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

(42) *Ibid.*, p. 447.

(43) 《조선통사》(하), 1958년, 평양, pp. 26~27.

(44) *Ibid.*, p. 71.

의……역 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⁴⁵⁾고 했다. 이와 같은 金日成의 整然한 圖式化가, 이미 발생한 過去의 일련의 事件들을 事後에 와서 國際的으로 새로 定立된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再解釋하는 맥스—레닌主義的 歷史記述方法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北韓이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에 들어선 것은 1947年 2月부터라고 하지만 엄밀한 意味에서는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에 들어선 것이 아니었다. 당시 北韓에는 資本主義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47年 현재의 產業生產額을 經濟型態로 보면 國營部門이 全生產額의 86%를 차지하고 있었고 民營部門은 14%에 불과했다.⁽⁴⁶⁾ 그 위에 日本人이 소유하고 있던 金融, 通信, 交通機關과 大建物등은 모두 國有化되고 있었다. 그리고 民營部門에 속한 것은 소규모의 個人企業과 手工業이었다. 個人農業의 集團化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었지만 이것도 現物稅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農民의 土地私有라는 것은 名目뿐이었다. 따라서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란, 資本主義로부터가 아니라 國營經濟로부터의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라고 規定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지만, 그런 規定은 實質적으로는 無意味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共產黨政權은 1948年 2月 1日 人民經濟 2個年계획(1949~50)을 채택하고 國營部門의 產業生產額을 1950年까지에는 全生產額의 90%로, 合作社部門은 2.9%로 올리는 한편, 民營部門의 生產額은 7%로 떨어뜨림으로써 北韓經濟에서 社會主義的 要素를 일층 強化할 것과 商品流通에 있어서도 國營 및 消費組合部門을 1950年度까지에는 1947年度의 206.9%로 올릴 것을豫見하고 있었다.⁽⁴⁷⁾ 이 人民經濟計劃은 6·25戰爭으로 완결되지 못했으며 社會主義建設은 戰爭후로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金日成은 그 自身이 도발한 南侵戰爭에 의하여 北韓의 都市와 產業施設이 겪더미로 化하고 農村이 황폐해 진 條件을 오히려 기회로 하여 休戰후 農業의 급속한 集團화와 重工業優先主義原則에 따라 社會主義建設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는 1953年 8月 5日 戰後人民經濟의 復舊發展計劃을 수립할 때, 이 計劃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 즉 첫 段階를 復舊建設의 준비단계로 책정하고 그 기간을 半年 내지 1年으로 잡았고, 둘째 단계는 復舊發展 3個年 계획을 수립하여 각 經濟部門을 戰爭前의 水準까지 회복시키는 시기로 定했고, 셋째 단

(45) 《김일성저작선집》5, 1972년, 평양, p. 142 및 p. 144.

(46) 《조선통사》(하), 前揭版, p. 129.

(47) *Ibid.*

계는 社會主義工業化의 기초를 축성하기 위해 5個年 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을 實現함으로써 工業화의 第1 단계를 完成하는 시기로 규정했던 것이다.⁽⁴⁸⁾ 5個年 計劃의 基本方向은 第3次 黨大會에서 채택되어 1957年부터 실시되었다. 그런데 復舊發展 3個年計劃이 진행되고 있던 1954年 11月 3日 金日성이 黨中央委員會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당시의 全體工業生產에서 國營工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약 90% 이상이고, 나머지 10% 중 7~8%가 協同經濟에 속하며 個人經濟는 2~3%밖에 안된다는 것이었다.⁽⁴⁹⁾ 이것은 休戰直後 겨우 명맥을 이어온 零細個人企業과 手工業이 소위 〈自願性〉의 原則에 따라 급속히 國有化 또는 協同化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 過程에서, 맘스—레닌主義的 社會階級 區分法에 의하여 〈民族부르죠아지〉 또는 〈小부르죠아지〉로 규정되어온 私營業體의 所有者들은 〈榮光스러운 社會主義的 勤勞者〉로 轉變했다.

個人商工業의 國有化, 農業, 水產業, 個人手工業의 協同化를 지칭하는 〈社會主義的 改造〉는 休戰 직후부터 더욱 급속하게 강행되어 5個年計劃이 진행도상에 있던 〈1958年에 와서 거의 동시에 끝났다〉.⁽⁵⁰⁾ 보다正確하게는 1956年末부터 1957年初에 실시되어 1958年 8月까지에는 모두 完成되었던 것이다.⁽⁵¹⁾ 金日성은 北韓에서 社會主義的 改造가 生產力의 發展水準이 비교적 낮고 기술이 뒤떨어진 條件에서 戰後 4~5年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끝났다는것을 몹시 自負하고 있었다.⁽⁵²⁾ 5個年計劃은 1957年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이 기간에 社會主義建設分野에서의 中心課業을 〈社會主義的 工業化的 기초〉를 닦는 것과 人民들의 物質生活을 基本的으로 해결한다는 데 두었고, 이 課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重工業의 優先的 長成을 보장하면서 輕工業과 農村經濟를 동시에 發展시키는〉 休戰 직후부터의 路線을 계속 추진했다고 했다.⁽⁵³⁾ 이와 더불어 社會主義的 改造를 완성하여 社會主義制度를 全面적으로 수립하는 일은 5個年 計劃期間中에 수행하여야 할 社會主義 基礎建設에서의 〈가장 중요한 課業〉이었다고 後日에 와서 강조했다.⁽⁵⁴⁾

(48) 《김일성선집》4, 1960년도판, 평양, pp. 197~198.

(49) *Ibid.*, p. 177.

(50) 《김일성저작선집》3, 1968년, 평양, pp. 63~64.

(51) 申佐鎬 〈わが國における 生産力と 生産關係〉. 『きょうの朝鮮』, 平壤, 1960年 4月號, p. 56.

(52) 《김일성저작선집》3, 1968년, 평양, p. 72.

(53) *Ibid.*, p. 62.

(54) 《김일성저작선집》5, 1972년, 평양, p. 150.

그에 의하면 5個年計劃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社會主義基礎建設의 과정이 달성되어 北韓은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臺를 가진 〈社會主義農業・工業國家〉로 되었다고 한다.⁽⁵⁵⁾ 共產黨政權이 都市와 農村에서 私的 所有에 기초를 두고 있는 生產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完成하여 社會主義的 生產關係의 唯一的支配를 확립한 것을 그는 〈社會主義制度의 勝利〉, 또는 〈社會主義의 決定的 勝利〉라고 부르고 있다. 맙스-레닌主義에서는 資本主義制度는 絶對惡이오 社會主義制度는 絶對善이라는 基準이 프롤레타리아革命論의 出發이 되고 있다. 金日成은 이상의 기준을 전제로 社會主義制度를 다음과 같이 完成하고 있다.

社會主義制度는 人民大衆이 政權을 잡고 있으며 生產수단에 대한 社會의 所有에 기초하여 人民들의 福利를 系統的으로 증진시킬 目的 밑에 높은 科學技術的 土臺 위에서 生產을 끊임없이 計劃的으로 發展시키며 온갖 착취와 壓迫을 영원히 없애고各自는 能力에 따라 일하며,各自에게는 勞動의 質과 量에 따라 分配를 하는 가장 先進的인 社會制度입니다.⁽⁵⁶⁾

레닌-스탈린的 社會主義制度가 〈가장 先進的인 社會制度〉라는 것을 論證하기 위하여 金日成은 資本主義制度와 社會主義制度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⁵⁷⁾ 즉, 첫째로 權利와 自由의 측면에서 볼 때, 資本主義社會에서는 人民은 아무런 政治的 權利와 自由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社會主義制度에서는 人民대중은 政治, 經濟, 文化的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民主的 權利와 自由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北韓社會에서는 全體人民이 나라의 政治에 自由롭게 參加하고, 自己의 革命偉業을 위하여 國家主權을 행사하며 자기의 能力과 소질에 따라 職業을 선택하고, 마음껏 일하고 배우며 生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經濟制度의 측면에서 볼 때,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生產手段이 私的 所有로 되어 있고, 生產의 目的이 資本家, 地主들이 더 많은 利潤을 짜내는 데 있기 때문에 勤勞大衆들은 오직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 못해

(55) *Ibid.*, p. 154.

(56) *Ibid.*, p. 162.

(57) *Ibid.*, pp. 162~163.

일하게 되며 生產과 技術의 發展에 대해 그 어떤 關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社會主義社會에서는 生產手段이 社會的 所有로 되어 있으며 勤勞者들은 國家와 社會를 위하여, 自己自身을 위하여 일하므로 人民大眾의 무궁무진한 創造力과 才能을 발휘케 하여 生產을 積極 없이 급속하게 발전시킨다고 한다. 또한 人民經濟의 모든 部門과 모든 企業所가 같은 目的과 公通의 利害關係를 기초로 有機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資本主義社會에서처럼 生產의 無政府性과 過剩生產恐慌이 없어지고, 人民經濟가 계획적으로 均衡있게 발전하며 나라의 모든 人的, 物的 資源과 生產의 潛在力を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위에 社會主義制度에서는 착취자도 피착취자도 없고 勞動의 결과는 全的으로 勤勞者들의 福利增進에 돌려지고, 生產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人民들의 生活은 系統적으로 向上된다는 것이 그의 分析이다.

金日成의 이상과 같은 黑白兩分論式 比較가 客觀的 現實에 부합되지 않는 主觀主義의 獨斷과 과장과 허위를 内包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여기서 具體的 으로 論評코자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觀點에서 그는 社會主義制度의 우월성을 믿고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에서 共產黨이 獨裁權力を 장악하고 社會主義制度를 수립했다고 해서 過渡期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수립은 社會主義革命의 시초에 불과하며 社會主義의 改造의 完成은 겨우 過渡期의 基本課業을 수행했음을 뜻한다. 社會主義의 完全한 승리를 이룩하고 共產主義社會로 移行하기 위해서는 社會主義制度가 수립된 이후에도 政治, 經濟, 文化的 領域에서 革命을 계속하여야 하며 建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過渡期理論의 中心으로 되었다.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이 수립되고 이것을 무기로 共產黨이 私的 生產關係의 社會主義의 改造에 착수하는 때부터 시작된다는 데 대해서도 共產主義者들의 見解가 일치한다. 그리고 北韓에서 그러한 過渡期가 1946年 2月에 시작되었다는 金日成의 事後說明에 대해서는 이미 論及한 바와 같다. 그러면 그 過渡期는 정확하게 어느 때 끝나며, 過渡期가 끝나는 것과 더불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도 끝나고 國家는 소멸하는 것인가 하는 問題는 各國共產主義者들 사이에 論爭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 원인은 맙스, 앤젤스, 레닌等의 過渡期問題에 대한 설명이 抽

象의 이거나 서로 어긋나는 데다가, 그들이 제시한 古典的 命題가 오늘의 共產黨國家에 現實的으로 적용될 수 없는 데 있다. 그리하여 스탈린도 후르시초프도, 毛澤東도 金日成도, 그리고 東歐의 共產主義者들도 過渡期문제를 자기들의 權力유지와 權力強化의 方向으로 각양하게 해명했던 것이다.

金日成이 자기의 過渡期理論을 〈主體〉의 입장에서, 北韓의 〈革命과 建設의 實踐的 經驗에 따라〉 내세운 것은 그가 自主路線을 선언한 1966年 8月이후였다. 그리고 그의 代表的인 설명은 1967年 5月 黨思想事業部門 일꾼들 앞에서 한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獨裁問題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⁵⁸⁾ 여기서 그는 맘스와 레닌의 命題가 나오게 된 歷史的 特殊性을 分析하면서, 各國의 歷史的 特殊성을 고려하지 않고 過渡期의 概念을 〈敎條主義의으로〉 解釋하는 데 問題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過渡期에 대한 見解에 있어서의 〈右傾機會主義의 偏向〉과 〈左傾機會主義의 偏向〉, 〈事大主義〉를 동시에 批判하면서, 그 자신의 立場은 맘스나 레닌이 써 놓은 命題들을 새로운 歷史的 條件과 우리나라의 具體的 現實에서 創造的으로 〈發展시키는 것〉⁽⁵⁹⁾이라고 常例的인 이데올로기의 修辭로써 正當化했다.

金日成의 過渡期理論에서 첫째의 特징은 過渡期의 界線을 어디다 긋고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와의 相互關係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종래의 過渡期問題에 대한 論爭에 있어서는 그 重點은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냐, 또는 共產主義에로의 過渡期냐에 두고 있었지만 이러한 用語上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社會主義란 共產主義의 첫 段階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도 內容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重要한 것은 〈過渡期의 界線을 어디에서 긋느냐 하는데 歸着된다〉고 그는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⁶⁰⁾ 그의 주장에 의하면 右傾機會主義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過渡期를 勞動階級이 主權을 쟁취한 때부터 社會主義制度의 勝利까지로 보며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獨裁期間을一致

(58) 〈金日成同志의 不朽의 劳作〉으로 예찬되고 있는 이 연설문이 『김일성저작선집』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이 연설에서 제시한 金日成의 理論을 北韓에서는 아직 完成되지 않은 試論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가 추측된다. 그런데 그의 간략한 연설全文은 그의 著作의 抜萃本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1969년, 평양, pp. 399~416)에 수록되어 있다.

(59)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pp. 403~407.

(60) *Ibid.*, 405.

시키는 데서 過渡期가 끝나면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歷史的 사명이 끝나는 것 으로 보는》見解를 그는 거부한다.⁽⁶¹⁾

한편 左傾機會主義者들처럼 過渡期를 資本主義로부터 共產主義의 높은 段階까지로 보는 것은 <사실상 界線을 긋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하여 그는 이것도 승인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한 나라에서는 共產主義를 실현할 수 없고 世界革命이 완전히 수행되어야 共產主義 단계로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世界革命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는 過渡期는 끝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도 이 긴 過渡期에 相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그는 右傾的 見解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것>이라고 批判한다.⁽⁶²⁾

金日成은 이상과 같은 右傾機會主義的 견해와 左傾機會主義的 見解를 가진 <일부 동무들>이 사실은 <事大主義에 사로 잡혀>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問題視하고⁽⁶³⁾ 이들은 北韓의 勞動黨文獻은 잘 研究도 하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데 많은 關心을 돌려 왔다>고 하면서 <이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힐난하고 있다.⁽⁶⁴⁾ 그런데 그는 그런 左·右傾的 偏向을 犯한 黨內의 <일부.동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事大主義의으로 맹종한 大國이 어떤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회고컨대 1960年代에는 中·소의 <이데올로기紛爭>이 프롤레타리아트獨裁論에까지 번졌고 東歐諸國에서도 <修正主義>가 대두하여 國際共產主義運動內에서는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트獨裁에 관한 理論을 둘러싸고 論爭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北韓에서 黨내에 파급되어 認識上의 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日成은 過渡期문제에 대해 자기의 <獨創的> 見解를 제시함으로써 黨의 통일적 理論을 定式化할 必要性에 봉착했을 것이다.

그는 우선 <左·右傾的> 機會主義者들의 견해와는 달리 <過渡期의 界線을 無階級社會까지로 긋는 것이 옳다>⁽⁶⁵⁾고 주장하는 한편,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過渡期의 全期間을 통해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過渡期가 끝난 다음에도 그것은 共產主義의 높은 段階까지 반드시 계속 되어야 한다>⁽⁶⁶⁾는 것

(61) *Ibid.*, p. 404.

(62) *Ibid.*, p. 406.

(63) *Ibid.*, p. 405.

(64) *Ibid.*, p. 408.

(65) *Ibid.*, p. 410.

(66) *Ibid.*, p. 411.

을 특히 強調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있어서 〈無階級社會〉란 무엇인가? 그것은 都市와 農村간의 差異, 勞動階級과 農民간의 階級的 差異가 없어지고 協同的 所有를 全人民的 所有(國有)의 水準으로 끌어 올린 단계의 社會主義社會⁽⁶⁷⁾를 말한다. 그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階級이 政權을 쟁취하고 生產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완성하면 낡은 摧取階級의 經濟的 기반은 소멸하지만, 이들의 殘餘分子는 계속 춘동하며, 勤勞者들의 意識속에 남아 있는 낡은 思想的 잔재는 生產關係가 바뀌었다고 해서 곧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⁶⁸⁾ 더우기 農村은 先進的 都市에 比한다면 文化的으로도 技術的으로도 思想的으로도 落後한 상태대로 상당 기간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農民들은 舊社會의 利己主義的 要素 때문에 革命的 集團主義의 길을 좀처럼 따라가려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 農村에서 技術革命을 힘차게 추진하여 生產力を 고도로 發展시키는 동시에,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을 추진하여 技術, 思想, 文化의 영역에서 農村의 落後性을 脫치하여 프롤레타리아트階級과 農民의 차이를 점차로 없애고 協同的 所有를 全人民的 所有의 수준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說明이다.

이것이 金日成의 無階級社會에 대한 비准时이다. 이러한 無階級社會의 建設을 그는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無階級社會의 實現, 即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려면 農民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農民의 〈革命化, 勞動階級化〉란, 利己主義와 小부르geoisie 아根성이 뿌리깊이 남아 있기 때문에 思想的으로 뒤떨어진 農民을 그 階級的本性으로 보아 가장 革命的이며 先進的인 勞動階級의 思想으로 改造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⁹⁾ 그는 農民의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인텔리의 革命化, 勞動階級化⁽⁷⁰⁾와 더불어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建設에서 가장 중요한 課題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는 勞動階級과 農民간의 階級의 差異가 없어지고, 中產層, 특히 農民大衆이 共產黨을 적극 지지하게 될 때 비로소 이룩될 수 있다고 하면서, 〈農民들이 勞動階級化되기 전까지는 그

(67) 《김일성저작선집》5, 1972년, 평양, pp. 166~173 참조.

(68) *Ibid.*, p. 165.

(69) 《김일성저작선집》4, p. 461.

(70) 金日成은 지식인들을 革命化하여 勞動階級화한다는 것은 <인테리들의 意識속에 남아 있는 낡은 思想殘滓를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勞動階級의 革命精神으로, 共產主義思想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勞動階級의 인테리로, 열렬한 共產主義者로 육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定義하고 있다. *Ibid.*, p. 372.

들이 우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고한 것으로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동요성을 면치 못할 것)⁽⁷¹⁾이라고 農民의 政治的 生理를 진단하고 있다.

金日成은 맙스-레닌主義의 教條的 理論에 따라 勞動階級,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本質的으로 革命的이오,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를 위하여 가장 용감히 투쟁하며, 階級的 過誤를 저지르지 않으리 만큼 현명하고, 個人的 私慾을 초월하여 階級的 이익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人間集團으로 主觀化, 絶對化하고 있다. 要컨대 그는 現實의 勞動階級이 아니라 浪漫的이오 理想화된 勞動階級에 기대하여 革命理論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그가 中產層으로 간주하는 農民을 勞動階級화하는 課題는 勞動階級의 지도와 방조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⁷²⁾ 그리고 都市와 農村의 差異를 없애고 人民生活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社會主義의 物質的 토대를 튼튼히 닦아 生產力を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과거의 동요하는 中產層을 共產黨員으로 끌어 들일 수 있으며 그 때에야 비로소 社會主義의 完全한勝利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中產層이 동요하지 않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完全히 지지하게 되기까지는 社會主義가 공고히 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社會主義가 完全히 승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中產層이 우리를 적극 支持할 때만 우리가 社會主義를 完全히 실현하였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社會主義建設을 전진시켜 中產層을 우리 편에 完全히 정취하게 될 때, 勞動階級과 農民의 差異를 없애고 無階級社會를 건설하게 될 때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의 過渡期의 임무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⁷³⁾

이상에서 그가 뜻하는 바는 無階級社會의 건설,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의 成敗는 共產主義가 中產層의 支持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에게 있어서는 〈小부르죠아根性〉과 〈利己主義〉를 비롯한 낡은 思想이 뿌리 깊이 박혔다고 보는 中產層의 勞動階級화가 가장 큰 苦悶의 하나였다. 1970年 11月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그는 北韓이 별씨 〈社會主義工業國家〉로 轉變했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그 前에도 後에도 農民

(71)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前掲版, p. 407.

(72) *Ibid.*, p. 409.

(73) *Ibid.*, p. 410.

과 인텔리 등 中產層이 아직 다는 勞動階級化되지 않은 것을 자기대로의 說明을 붙여 是認하면서 〈全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화하는 것은 爪취계급이 청산되고 社會主義制度가 승리한 우리 社會에서 프로레타리아獨裁의 중요한 임무〉⁽⁷⁴⁾라는 것을 빈번히 강조해 왔다. 農民과 인텔리 등 中產層이 다는 勞動階級化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들의 대부분이 共產主義를 内心으로는支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상과 같이 강조 하는 데도 充分한 理由가 있다.

1967年 2月 2日 金日成이 全國農業일군大會에서 한 演說은 적지 않은 農民들이 〈自己먹을 것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나라의 利益이야 어떻게 되든 自己에게 利로와야 좋아한다〉는 태도와 〈自己個人生活에만 몰두하고 集團과 共同經濟의 發展에 대하여 關心을 덜 돌리는 傾向이 많다〉는 사실 등⁽⁷⁵⁾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지적하였다. 이에 의하면 〈農民들의 머리에는 利己主義와 小부르조아思想, 集團主義에 어긋나는 낡은 思想이 뿌리깊이 남아 있어서〉 協同農場들에서 소를 집집마다 나누어 기르면 잘 기르는데 共同畜舍에 넣어 기르면 되는대로 기른다는 것, 農民들이 〈自己가 먹을 양곡은 좋은 것으로 끌라서 남겨두려고 하면서 나라에 팔 수매곡은 아무것으로나, 그것도 될 수록 적게 내려고 한다〉는 것이오, 이 한 두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農民들이 小부르조아思想의 영향에서 벗어날 날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인정했다.⁽⁷⁶⁾

또한 그는 〈農民들 속에 남아 있는 利己主義思想, 集團生活을 싫어하고 共同財產을 제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며 집도 잘 거두지 않고 水路도 되는 대로 거두고 肥料와 農機械도 되는 대로 거두는 낡은 思想이 技術革命을 방해하고 있다〉⁽⁷⁷⁾고 개탄했다. 그는 不注意하게도 〈지금 우리 나라에서 社會主義를 정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勞動者, 貧農들〉⁽⁷⁸⁾이라고 말함으로써 北韓의 共產黨政權이 全體人民의 絶對的인 支持를 받고 있다는 자기의 선전을 스스로 부인했다. 貧農을 그는 社會主義의 支持勢力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신뢰도 半은 회의적이다. 그것은 農民에 대한 그의 階級的分析에 기인하고 있다.

(74) 《김일성 저작선집》 4, 1968년, 평양, p. 54.

(75) *Ibid.*, p. 457.

(76) *Ibid.*, p. 458.

(77) *Ibid.*, p. 462.

(78) *Ibid.*, p. 465.

그에 의하면⁽⁷⁹⁾, 北韓의 協同農場員들의 계급적 구성을 볼 때 本來의 雇農 다시 말해 農村無產階級은 적고, 貧農이 農村人口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貧農은 품팔이도 하지만 한뼘 소, 農器具, 약간의 自己 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完全한 勞動階級이 아니라 半은 小부르죠아階級이오 半은 勞動階級, 즉 半프롤레타리아트다. 이에 대해 中農은 이미 完全한 小資產階級, 즉 小부르죠아지다. 北韓의 農民들이 이러한 貧農과 中農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들의 머리 속에 小所有者的 根性, 利己主義가 남아 있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農業의 協同化로 農民들이 社會主義的 農業勤勞者가 되어 勞動階級에 더욱 接近했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農業協同化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어제까지의 貧農과 中農이 完全히 勞動階級化되었는가 하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農民의 革命化, 勞動階級化는 <農村에서 가장 重要한 革命課業>으로 제기된다는 것이다.⁽⁸⁰⁾

金日成의 貧農以外의 계층에 대한 不信은 보다 철저하며 정직하다. 직접 그의 말을 듣기로 하자.

그런데 中農이나 都市의 小市民, 인텔리를 비롯하여 그 전에 돈냥이나 좀 있고 비교적 괜찮게 살던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들은 이것도 없소, 저것도 없소 하고 그저 없다는 타령 뿐입니다. 또 없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中產層의 생활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社會主義制度가 정말 資本主義制度보다 나은가 어떤가, 社會主義制度가 승리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疑問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프롤레타리아獨裁가 무서워서 내놓고 社會主義를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反對하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⁸¹⁾

이렇게 中產層이 社會主義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동요하고 있는 條件에서는 社會主義가 完全히 勝利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 이들이 社會主義制度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思想을 改造해야 하지만 이것은 經濟生活을 떠나서 思想事業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79) *Ibid.*, p. 459.

(80) *Ibid.*, pp. 459~460.

(81) *Ibid.*, pp. 466~467.

〈밤낮 革命, 革命하고 요란하게 新聞에다 글이나 써내고 萬歲만 부르는 것으로 사람들의 思想意識이 改造될 수 없다〉⁽⁸²⁾는 것을 그는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生產力を 발전시켜 人民들의 生活水準을 높이고 社會主義의 優越性을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 사람들의 思想意識을 개조하는 根本的 담보가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農業部門의 指導 일군들이 物質的 刺激의一面만에 치우치거나 經濟主義 또는 技術至上主義로 나가는 것을 염중히 경고하면서 革命思想의 제 1 次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⁸³⁾

協同農場農民들의 勞動意慾・生產意慾의 저조함과 不滿, 不平은 근본적으로는 制度自體에, 黨政策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金日成은 모든 責任을 全的으로 農民들의 〈小부르조아思想〉, 〈封建儒教思想〉, 〈保守主義〉, 〈修正主義〉, 〈要領主義〉, 〈利己主義〉, 〈形式主義〉, 〈消極性〉과 같은 〈오가집탕의 雜鬼神〉과 指導幹部들의 〈官僚主義〉, 〈事大主義〉, 〈主觀主義〉, 〈機關本位主義〉, 〈經驗主義〉등 〈낡은 事業作風〉에다 돌리면서 비난해 왔다.

不平은 農民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勞動者와 일반 黨員들에까지 널리 퍼지고 있다. 全社會의 全體主義의 編制化, 지나치게 고달픈 勞動, 生活必需品의 결핍, 戰時를 방불케 하는 動員體制의 強化, 〈黨勢道〉의 횡포와 特權化, 社會의 실질적 階層化의 현상은各界 근로대중을 권태와 피로, 不安과 消極的 저항으로 몰아 넣어 왔다. 이상 金日성이 사용하는 일련의 상투적 비난 用語들은 黨中央의 政策과 指示에 대한 근로대중, 일반 黨員, 現地指導幹部들의 非協力과 面從腹背가 뜻밖에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을 풍족한 物質的 보수로 만족시켜 줄 條件이 없는 한, 黨指導部는 절세의 위대한 指導者, 만능의 革命家로 絶對化, 神格化된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를 핵심으로 이데올로기注入教育을 더욱 強化하면서 이들을 全體主義의 獨裁權力으로 몰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II.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

金日成의 過渡期理論의 둘째 특징은 그의 특유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論에서 볼 수 있다. 막스, 엥겔스, 레닌等의 古典的 理論이 過渡期와 프롤레

(82) *Ibid.*, p. 465.

(83) *Ibid.*, p. 457.

타리아트의 獨裁는 相應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過渡期가 끝날 때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도 끝난다고 본 데 대해, 金日成은 이것을 修正하여 〈過渡期가 끝나도 共產主義의 높은 단계에까지 프로레타리아獨裁는 계속되어야 한다〉⁽⁸⁴⁾는 것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 즉 無階級社會가 이룩되어 過渡期가 끝난다고 해서 共產主義의 높은 단계로 곧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過渡期가 끝나더라도 共產主義의 높은 단계로 들어 가자면 革命과 건설을 계속하여各自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需要에 따라 分配를 받는 水準에까지 生產力を 발전시켜야 한다⁽⁸⁵⁾는 것이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獨裁 없이 이 任務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하다.〉⁽⁸⁶⁾ 그러므로 〈過渡期가 끝나도 共產主義의 높은 단계까지 프롤레타리아트 獨裁는 계속되어야 한다〉⁽⁸⁷⁾는 것이 그의 論理다.

그러면 그가 實現하겠다는 共產主義社會란 어떤 것인가? 이에 관해 그는 스탈린主義的 解석⁽⁸⁸⁾을 그대로 담습하고 있다. 즉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1) 都市와 農村간의 差異, 勞動階級과 農民간의 差異가 소멸되고 (2) 協同的 所有形態가 모두 單一的인 全人民의 所有形態로 바뀐 社會가 共產主義社會다. 이와 더불어 (3)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의 差異가 없어져 勞動하는 것이 〈苦痛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유쾌한 것으로 되며 生活上의 要求로 되는 社會다.〉⁽⁸⁹⁾ 그리고 (4) 〈물건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自己의 能力에 따라 일하고 需要에 따라 分配를 받게 되는〉 社會,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自己에게 요구되는 대로 얼마든지 分配를 받을 수 있으며 生活上 需要

(84)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前掲版, p. 412.

(85) *Ibid.*, pp. 410~411.

(86) *Ibid.*, pp. 411~412.

(87) *Ibid.*, p. 412.

(88) 스탈린時代 末期의 소련共產黨의 理論家였던 Z.A. 스페빠니안은 스탈린의 〈天才的〉 命題라고 하여 共產主義社會의 原則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 共產主義는 共有制의 單一形態, 즉 全人民의 所有制만을前提로 한다.
- 2) 共產主義는 낮은 社會의 分業, 즉 都市와 農村과의 對立, 肉體勞動과 精神勞動과의 對立의 完全한 消滅을 전제로 한다.
- 3) 共產主義下에서는 그런 對立이 消滅되면서 모든 階級의 差異가 완전히 소멸된다.
- 4) 共產主義下에서는 〈各人으로부터 그 能力에 따라서, 각人에게는 그 需要에 따라서〉라는 原則이支配한다. 이 時代가 되면 物資가 完全히 풍부해지고, 勞動이 단지 生活上의手段일 뿐만 아니라 人生의 第1義的 要求로 轉化하는 것이다. ソ同盟科學アカデミー哲學研究所, コンスタンチーノフ編著『ソヴェト社會の解明』, 1952年, pp. 433~434.

(89) 《김일성저작집》 3, 平양, 1968년, p. 49.

를 完全히 충족시킬 수 있는》⁽⁹⁰⁾ 社會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共產主義의 높은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그런 단계에는 과연 언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物質的生產力이 저급하고 政治·經濟制度가 硬直化될 대로 되었고, 大衆의 生活이 아직도 빈곤하고, 勤勞大衆의 思想改造가 아직도 요원하고, 資源과 資本이 不足한 北韓에서 金日成이 약속하는 그런 유토피아的 共產主義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幻想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런 共產主義를 목표로 工業化와 技術革命과 文化革命을 철저히 수행하여 社會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土臺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 무수하게 강조해 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理想으로 하고 있는 物質的·技術的 水準은 先進資本主義社會의 水準이고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社會主義의 物質的 土臺를 계속 튼튼히 닦아서 生產力を 적어도 발전된 資本主義 나라들의 水準에까지 끌어올리고 勞動階級과 農民의 差異를 完全히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발전된 資本主義 나라들에서 農村을 資本主義화한 정도로 技術革命을 하여 農事일도 기계로 하고 化學化와 水利化도 하며 8時間勞動制도 실시하여야 합니다.⁽⁹¹⁾

또한 그는 生產力を 급속히 發展시켜 人民들을 어려운 勞動으로부터 解放하고 生活水準을 높혀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하게 주장해 왔다.⁽⁹²⁾ 이때에 그가 人民들의 生活水準에서 目標로 한 것이 겨우 40여년전 日帝時代의 우리나라 中產層의 生活水準보다 약간 높은 것이라는 데 실망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의 말은 아래와 같다.

…工業과 農業을 빨리 發展시키는 기초 위에서 우리는 모든 勤勞者들의 生活水準을 지난날의 中產階層의 生活水準 以上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全體人民들이 다 社會主義의 참다운 優越性을 實生活을 통하여 더 잘 느끼도록 하며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에 대한 확고한 信念을 가지고 社會主義制度를 葦固 發展시키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90) *Ibid.*, p. 206.

(91)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前揭版, p. 412.

(92) *Ibid.*, p. 409.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社會主義는 完全히 승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⁹³⁾

이상 金日成의 말로써 판단하면 北韓이 生產力과 生活水準에서 아직도 資本主義나라들보다 멀리 뒤떨어져 있으므로 資本主義나라들을 능가하고 必要한 만큼 分配를 받는 共產主義社會에 도달하기란 너무나 요원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가 共產主義社會를 실현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란 사실은 共產黨의 一黨獨裁, 共產黨안에서도 극소수자의 獨裁를 永久化하겠다는 宣言과 다름이 없다.

北韓에서 共產主義社會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최상의 경우라도 半永久的인 課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는 <共產主義를 完全히 건설하려면 오랜 歲月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그렇게 먼 앞날의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共產主義를 빨리 건설하는가 못하는 것은 全的으로 우리가 어떻게 戰爭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⁹⁴⁾고 北韓人民들에게 共產主義에 대한 信念을 고취하는 데 애쓰고 있다. 그런데 그가 이상과 같은 말을 하는 真意는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共產主義는 몇 百年 후에 가서야 實現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時代에는 共產主義를 實現할 수 없고 우리 時代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共產主義가 建設될 수 있다는 말이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러한 思想으로 教養해서는 안 됩니다. 共產主義社會가 몇 百年후에 가서야 實現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共產主義에 대한 信念을 가지지 못하고 그 勝利를 위하여 積極 戰爭하지 않을 것입니다. ⁽⁹⁵⁾

한편 그는 한나라 또는 일부 地域에서 共產主義가 實現되었다고 해도 그 것만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즉, 世界革命이 아직 完遂되지 못하고 資本主義와 帝國主義가 남아 있는 條件에서는 그러한

(93) 『김일성저작선집』 5, 1972년, 평양, p. 174.

(94) 『김일성저작선집』 6, 1974년, 평양, p. 206.

(95) *Ibid.*

共產主義社會는 〈帝國主義의 위협〉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外部의 원수들과 결탁한 内部의 원수들의 反抗〉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國家는 潛落될 수 없으며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의연히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 한다.⁽⁹⁶⁾ 따라서 〈만일 世界의 모든 나라에서 革命이 連續的으로 일어나고 世界的 규모에서 資本主義가 멸망하고 社會主義革命이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獨裁가 서로一致하게 되고 過渡期가 끝나면 프롤레타리아獨裁도 더는 필요없게 되며 國家의 機能이 조락하게 될 것〉⁽⁹⁷⁾이라는 것 이 그의 說明이다.

별써 樂園이 다 된, 그리고 社會의 成員들도 모두 共產主義의 人間으로 改造되었다고 하는 共產主義社會에서 外部 帝國主義원수들과 결탁한 〈内部의 원수들의 反抗〉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을 수 있는 일을前提로하여 世界에서 資本主義와 帝國主義가 모두 멸망하여 〈社會主義의 終局的 勝利〉가 보장될 때까지는 비록 한 나라에게 共產主義가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은 世界的 범위에서 모두 共產主義가 실현될 때까지는 北韓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말하자면 獨裁權力의 永久化를 2重으로宣言한 것이다.

이상에서 分析한 金日成의 過渡期理論을 정리하면, 過渡期는 ①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수립으로부터 生產關係의 社會主義의 改造에 의하여 社會主義制度가 勝利하기까지의 段階, ② 社會主義制度의 勝利로부터 無階級社會의 實現에 이르러 社會主義가 完全히 勝利하기까지의 段階로 구분된다. 無階級社會의 實現으로써 過渡期가 끝난 후에는 社會는 계속 발전하여 1國 또는 1部 地域에서 完全한 共產主義가 실현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過渡期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 過渡期가 끝나고 共產主義가 실현되어도 全世界的 규모로 革命이 일어나 資本主義와 帝國主義가 쇠퇴 멸망하여 社會主義의 終局的 승리가 보장될 때까지는 이 獨裁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過渡期理論은 일찌기 맑스도 레닌도 제시한 바가 없다.

맑스는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一致하여 過渡期를 비교적 짧

(96)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前揭版, p. 412.

(97) Ibid.

은 기간으로 보았고, 레닌도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問題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맙스의 立場을 계승했지만 맑스가 生活하고 活動한 英國이나 獨逸과는 달리 뒤떨어진 資本主義國家인 러시아에서 生活하고 活動했기 때 문에 過渡期단계, 즉 社會主義단계를 비교적 긴 期間으로 보았다는 것이 金日成의 해석이다.⁽⁹⁸⁾ 그의 설명에 의하면 맑스가 목격하고 거기서 活動한 19世紀後半의 英國 같은 발전된 資本主義나라는 都市는 물론 農村까지 完全히 資本主義化되어 〈農村에 農民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工業勞動者와 함께 農業勞動者가 있게 되는 그러한 資本主義나라〉였다고 한다. 따라서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間題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맑스는 먼저 勞動階級과 農民간의 階級의 差異가 없는 그러한 條件을前提로 하고 出發하였다 것〉⁽⁹⁹⁾이라고 金日成은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現代의 가장 發展된 資本主義나라들에서는 生產力이 고도로 發展하여 都市와 農村에서 다 같이 勞動階級이 유일한 動勞階級이 되었으며, 農村은 고도로 機械化되어 農村의 電氣化, 化學化, 水利化도 아주 높은 水準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勞動階級과 農民간의 階級의 差異가 없을 뿐만 아니라 農業生產力이 工業生產力과 거의 같은 水準에 이르렀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는 오늘의 美國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상 自己의 分析을 기초로 하여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資本主義나라들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主權을 잡은 다음 社會主義로 넘어가는 過渡的段階를 비교적 짧은 期間으로 보았던 것〉⁽¹⁰⁰⁾이라고 맑스의 過渡期論을 부연하고 있다.

金日성이 이와 같이 19世紀의 英國 또는 獨逸과 현재의 가장 발전된 資本主義나라들의 農村을 설명할 때 그는 兩者的 발전水準을 同一視め지 混同하고 있는 것이다. 맑스가 보고 그 안에서 산 19世紀의 英國이나 獨逸의 農村에서 〈이미 農民은 存在하지 않고〉 存在하고 있던 것은 〈工業勞動者와 함께 農業勞動者〉만이었다고 하는 記述은 歷史的事實의 과장된 歪曲이다. 맑스時代의 英國農村에서 만은 農業勞動者가 多數였으나 그 外에도 小作農, 貧農등 각종의 農民들이 있었고, 獨逸의 경우 農村에는 資本主義化는 아직도 미숙했으며 封

(98) *Ibid.*, p. 402.

(99) *Ibid.*, pp. 400~401.

(100) *Ibid.*, p. 401.

建的 生產關係가 크게 지배하고 있었다. 오늘 西歐의 農村에서는 貧農은 거의 消滅되었고, 中農(自作農)이 農村社會에 鉤擗를 형성하고 있다. 이나라 農村에서 農民은 이미 없어졌고 存在하는 것은 工業勞動者와 農村勞動者뿐이라는 現象은 19世紀에는 물론 20世紀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都市勞動者와 農民들 사이의 生活水準은 거의 同一하지만 政治意識, 生產力, 文化生活上의 差異는 地方에 따라 家口에 따라 各樣하다. 19世紀의 發展된 資本主義나라의 農民들은 金日成이 말하는 의미에서 勞動階級化된 것도 아니며, 그 勞動階級은 프롤레타리아革命과 共產主義를 志向하지도 않았다. 요컨대 그는 잘못 된 歷史的 認識에서 過渡期問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金日成은 맑스가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一致시키고 過渡期를 비교적 짧은 歷史的 期間으로 본 까닭은 그의 連續革命論의 觀點 때문이라고 한다. 金日成이 말한 대로⁽¹⁰¹⁾ 맑스는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유럽의 主要資本主義나라들에서 거의 同時에 連續的으로 일어날 것이라고豫見했으며 世界革命이 비교적 빨리 승리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의 青年期의 생각이었으며 老年期의 맑스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英, 美, 홀랜드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革命이 아니라 選舉를 통하여 政權을 획득할 수 있다고 公言했던 것이다. 그리고 過渡期의 期間에 대해서도 짧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견한 일은 있으나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明確한 말을 하지 않았다. 金日成이 레닌의 見解를 설명할 때 레닌도 맑스의 基本的 立場을 계승했다는 것, 즉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一致시키고 있다는 것, 그러나 러시아는 뒤떨어진 資本主義나라였기 때문에 勞動階級과 農民의 階級의 差異가 남아 있었다는 것, 따라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는 過渡期를 맑스와는 달리 비교적 길게 보았다고 했는데,⁽¹⁰²⁾ 이러한 說明은 레닌의 見解를 비교적 옳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金日成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過渡期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어야 하고, 그뒤에 1國에서 共產主義가 실현되더라도 世界革命이 완수될 때까지는 이것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맑스와 레닌에 대한 중대한修正이다. 그러나 그는 自己의 觀點을 修正主義라고는 할 수 없었다. 修正

(101) *Ibid.*, 402.

(102) *Ibid.*, pp. 402~403.

主義는 맑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에서는 慣例的으로 背敎와 同一視되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맑스—레닌主義의 慣例대로 自己의 修正을 〈創造的 適用〉이라고 다음과 같이 응호하였다.

우리가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獨裁 問題를 이와 같이 보는 것은 결코 맑스—레닌主義를 修正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立場은 맑스나 레닌이 써놓은 命題들을 새로운 歷史的 條件과 우리나라의 具體的 實踐에서 創造的으로 適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教條主義와 事大主義를 반대하고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을 固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¹⁰³⁾

金日成의 過渡期理論에서 注目할 점은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 移行하는 過程에는 不可避的으로 치열한 階級鬪爭이 수반된다고 하는 點을 유달리 강조한 點이다. 共產主義者들이 부르죠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權力鬪爭을 階級鬪爭으로 規定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맑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수립된 이후의 階級鬪爭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볼셰비키政權이 수립된 후 레닌이 이것을 強調했으며, 스탈린은 黨內外에서의 權力鬪爭과의 관련하에 이것을 더욱 강조했다. 그런데 金日成은 社會主義制度의 수립 以前에는 물론, 社會主義制度의 수립과정에서도 그리고 社會主義制度가 수립되고 난 후에도 치열한 階級鬪爭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그는 1955年 4月 1日 黨中央委員會全員會議에서 27年前(1928年 10月 19日) 스탈린이 모스크바의 한 黨會合에서 한 주장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 移行하는 歷史的 行程은 치열한 階級鬪爭을 동반합니다. 스탈린이 말한 바와 같이 죽어가는 階級이 自發的으로 歷史의 무대에서 물러난 일은 일찌기 없었으며, 죽어가는 부르죠아지가 自體의 生存을 고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發惡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도 歷史에 있어 본 일이 없읍니다.⁽¹⁰⁴⁾

그는 스탈린의 이러한 一般論을 北韓에다 적용하여 民主改革의 결과, 청산

(103) *Ibid.*, p. 412.

(104) 《김일성저작선집》1, 1967년, 평양, p. 501.

된 〈地主階級〉과 〈隸屬資本家〉, 〈親日派〉, 〈民族叛逆者〉, 그리고 그밖의 〈反動分子들〉은 과거의 自己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妄想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搆取의 本性〉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단죄했다. 또한 北韓의 人民大衆의 머리 속에는 〈오랫동안에 걸쳐 腐蝕된 낡은 社會의 思想殘滓, 舜관, 傳統들〉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階級鬭爭은 물론 치열하게 계속되어 모두 숙청·소탕되었지만 그들의 思想的 殘滓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¹⁰⁵⁾을 그는 빈번히 지적했다.

그는 힘이 미약했던 個人商工業이나 手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過程에서 수반되는 階級鬭爭에 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지만 農業의 集團化에 저항하는 農民들에 대해서는 階級鬭爭을 단행했음을 公言하고 있다. 農業集團化가 다 끝난 1959年 1月 그는 集團化(協同化)에서 〈自願性의 原則을 준수하였다〉고 하면서도 한편 黨政策을 비방, 반대하는 〈階級的 원수〉들에 대한 〈階級鬭爭을 통하여 실현되었다〉⁽¹⁰⁶⁾고 自負했던 것이다. 그리고 農業集團化에 있어서는 〈소련의 풍부한 경험〉을 北韓의 現實과 결부시켜 정확한 路線을 제시하고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했다고 했다.⁽¹⁰⁷⁾ 여기서 〈소련의 풍부한 경험〉이란 1928年 이후 스탈린이 사용한 그 가혹했던 農業集團化方法을 뜻함은 물론이다.

그가 農業集團化와 관련하여 〈階級的 원수〉, 〈反動分子〉, 〈反黨分子〉등으로 비난한 대상에는 그의 政策에 반대했거나 비판했던 黨内外의 모든 사람들 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階級鬭爭〉이란 富農이건, 貧農이건, 黨員이건, 非黨員이건을 막론하고 集團化政策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抹殺政策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金日成이 人民大衆의 物資生活을 기아직전의 水準으로 유지하면서 盲進的인 스탈린式의 重工業優先政策과 성급한 農業集團化政策을 休戰후에 강행하고 있었을 때 黨最高位指導部 안에서도 批判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政策에 대해 不信을 품은 者를 〈宗派主義者〉라고 해서 축출했고, 이것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宗派主義는 資本主義思想에서 나온 것〉이오, 이것은 〈黨을 4分 5裂化하고 資本主義를 再生시킬 수 있는〉害

(105) *Ibid.*

(106) 『김일성선집』 6, 1963년, 평양, p. 175.

(107) *Ibid.* 그런데 1968年度版 『김일성저작선집』 2卷에서는 〈소련의 풍부한 경험〉을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改作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과거의 發言을 事後의 自主路線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독의 하나라고 했다.⁽¹⁰⁸⁾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階級鬭爭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結論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金日成은 階級鬭爭의 기간을 연장하여 〈搯取階級이 청산되고 生產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끝난 다음에도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의 全期間에 걸쳐 階級鬭爭은 계속된다〉고 宣言했다. 그 理由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물론 都市와 農村에서 社會主義的 改造가 完成되면 搾取階級은 階級으로서 完全히 清算되어 그의 社會經濟的 地盤도 더는 存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殘餘分子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들은 自己의 옛地位를 되찾으려는 妄想을 버리지 않고 破壞活動을 끊임없이 감행합니다. 그러므로 社會主義制度가 승리한 다음에도 社會主義社會에는 敵對的 要素들이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¹⁰⁹⁾

그는 이 内部的 敵對分子들이 그 自體로서는 별것이 아니지만 外來帝國主義者들의 앞잡이로 되고 있으므로 階級鬭爭은 불가피하다는 論理를 유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韓國內의 美國人們과 관련시켜 이들이 北韓의 〈社會主義制度를 전복할 目的으로 南半部의 反動階級들과 北半部의 搾取階級殘餘分子들을 사축하여 破壞暗害活動과 思想的 침투를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¹⁰⁾ 요컨대 制度와 政策에서 나오는 不安要因을 모두 땀 끼에 돌리려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社會主義制度가 선 다음에도 勤勞者들의 意識 속에는 數千年 동안 내려온 搾取社會에서 물려받은 낡은 思想의 痘재가 오랫 동안 남아 있게 되게 된다〉⁽¹¹¹⁾는 理由로써 階級鬭爭, 즉 批判勢力의 말살을 正當화하고 있다.

이렇게 社會主義制度下에서 階級鬭爭이 계속되는 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必要할 뿐만 아니라 더욱 強化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階級鬭爭의 武器요, 〈階級鬭爭을 하기 위하여 必要한 것〉⁽¹¹²⁾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階級鬭爭과 프롤레타리아트의

(108) 《김일성선집》5, 1960년, 평양, p.383 및 p.388.

(109) Ibid., pp. 164~165.

(110) Ibid., p. 165.

(111) Ibid.

(112)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前掲版, p.413.

獨裁를 不可分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階級鬪爭은 反革命分子(金日成의 각종 反對派)를 진압하는 武器인 동시에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를 건설하는 武器라는 것을 그는 빈번히 주장해 왔다. 그리하여 그는 〈社會主義國家는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強化하여 한편으로는 階級鬪爭을 계속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主義經濟建設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¹¹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비록 一國에서 共產主義社會가 실현된다고 해도 프롤레타리아革命이 世界的 규모로 勝利하기까지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金日成의 주장에 따른다면 階級鬪爭도 그 때까지 계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獨裁는 階級鬪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의 階級鬪爭論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論이 그런 것처럼 階級鬪爭의 永久繼續에 대한 宣言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金日成은 社會主義下에서의 階級鬪爭을 (1)外部의 階級的 敵對分子와 결탁한 内部의 階級的 敵對分子(전복된 舊搆取階級의 殘餘分子)의 파괴활동에 대한 鬪爭, (2)勤勞者의 意識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낡은 부르조아思想의 殘滓를 반대하는 鬪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敵對分子들에 대한 鎮壓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國家의 〈基本機能〉이오, 社會主義國家가 최후까지 수행해야 할 〈階級鬪爭의 形式〉이라고 규정한다.⁽¹¹⁴⁾ 그러나 勤勞者들에 남아 있는 낡은思想을 뿐리빼기 위한 鬪爭은 〈勞動階級의 思想과 부르조아思想間의 鬪爭이라는 意味에서 階級鬪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을 숙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思想을 改造하기 위한 思想鬪爭〉, 즉, 사람들을 共產主義思想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思想革命을 중요한 內容으로하는 階級鬪爭이다.⁽¹¹⁵⁾ 그에 의하면 勤勞者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낡은 부르조아思想의 殘滓를 청산하기 위한 思想革命은 社會主義社會에서의 〈階級鬪爭의 基本形式〉이 된다는 것이다.⁽¹¹⁶⁾

思想革命을 내용으로 하는 階級鬪爭의 目的是 결국 〈農民을 勞動階級화하여 階級으로서의 農民을 없앨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인테리와 都市小資產階

(113) 『김일성저작선집』 5, 前掲版, p. 166.

(114) *Ibid.*, p. 172.

(115) *Ibid.*

(116) *Ibid.*

級을 비롯한 中產層을 革命化하여 勞動階級의 모양대로 改造하자는 것)⁽¹¹⁷⁾ 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 때의 階級鬪爭(思想革命)은 敵對分子 들과의 鬪爭에서처럼 〈暴力的 方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說服과 教養의 方法〉으로 進行해야 하고 勤勞者들의 〈統一과 團結〉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¹¹⁸⁾을 누누히 역설해 왔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階級鬪爭은 결코 社會成員들이 서로 反目질시하기 위해서 하는 階級鬪爭이 아니다. 社會主義下에서는 階級鬪爭을 하되 그것은 統一과 團結을 목적으로 하여 〈協助의 方法으로 階級鬪爭을 하는 것⁽¹¹⁹⁾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鬪爭과 協助는 本質的으로 對立되는 概念이므로 그가 〈協助의 方法으로 階級鬪爭을 하는 것〉이라고 한 그의 말은 하나의 修辭에 불과하다. 아무리 說服과 教育을 강조해도 그것이 階級鬪爭인 한 그것은 暴力的 鎮壓과 公포와 強制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社會는 소위 社會主義制度가 수립된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階級鬪爭을 人民大衆을 위협하고 숙청하는 公포의支配方法으로 사용되어 왔다.

北韓의 黨理論家들은 金日成의 이상과 같은 階級鬪爭論을 〈가장 科學的이며 創造的인 思想〉이라느니 또는 그가 〈階級鬪爭에 관한 獨創의 理論을 創始하심으로써 階級鬪爭에 관한 理論이 비로소 하나의 完全된 體系를 이루게 되었다〉⁽¹²⁰⁾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說服〉과 〈教養〉을 통하여 勤勞者들, 특히 非프롤레타리아的 中產層의 思想을 改造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1949年 6月 毛澤東이 그의 《人民民主主義獨裁論》에서 體系的으로 論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強制的 方法이 아닌 民主的 方法, 즉 教育과 說服에 의하여 人民들이 舊社會로부터 몸에 지닌 나쁜 習慣과 思想을 改造하고 敵對階級에 대하여는 強制的 方法(獨裁)으로 그들을 改造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¹²¹⁾ 金日成의 論旨는 毛澤東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런데 小부르조아 階級을 教育하고 改造할 수 있다는 것은 毛澤東의 獨創이 아니다. 스탈린까지도 1924年 4月 그의 《례닌主義의 基礎》에서 레닌의 긴 文言을 引用하면서 過渡期는 〈社會主義의 生產의 조직을 保障하는 方向에서 小

(117)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前揭版, p. 413.

(118) 『김일성저작선집』, 5, 前揭版, p. 172.

(119)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前揭版, p. 413.

(1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1970년, 평양, p. 87.

(121) 《毛澤東選集》(一卷本), 前揭版, pp. 1365~1366.

부르조아層을 再教育하고 改造할 可能性을 주기 위해서도 必要하다⁽¹²²⁾고 教育과 改造問題에 언급했던 것이다.

北韓과 때를 같이하여 中共에서도 1956年 여름까지에는 毛澤東의 急進主義路線에 따라 生產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기본적으로 完了되었다. 이에 따라 黨內의 穩健派들은 階級鬭爭과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必要性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毛澤東은 1957年 2~3月에 《人民內部의 矛盾을 正確히 處理하는 問題에 관하여》와 《中國共產黨 全國宣傳工作에서 한 講話》를 통해 所有形態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끝난 이후의 社會의 矛盾을 〈人民內部의 矛盾〉(非敵性的 矛盾)과 〈敵·我간의 矛盾〉(敵性的 矛盾)으로 구분, 이것을 體系的으로 분석하면서 矛盾의 性格에 相應하는 階級鬭爭의 형식을 제시했다.

그는 여기서 人民民主主義獨裁의 第一의 機能을 國內의 社會主義의 敵對勢力을 억압하는 데 두었고, 第2의 機能을 國外의 敵의 전복활동과 있을 수 있는 侵略을 방어하는 데 두었다.⁽¹²³⁾ 그리고 中共에서는 社會主義的 改造가 所有制의 面에서는 基本的으로 끝나 革命의 時期에서처럼 격렬한 대규모의 大衆의 階級鬭爭은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地主등 전복된 좌취계급의 殘存分子는 아직 존재하고 부르조아階級도 아직 존재함으로써 〈階級鬭爭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¹²⁴⁾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사이의 意識形態(이데올로기)의 面에서의 鬭爭은 오래 계속될 것이오 때로는 激烈할 것이라고 확언하고 思想鬭爭을 소홀히 말도록 경고하면서 〈思想鬭爭은 그밖의 鬭爭과는 달라 亂暴하고 強制的인 方法을 취해서는 안되며 세밀한, 事理를 밝히는 方法을 취해야만 한다⁽¹²⁵⁾고 가르쳤다. 더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부르조아階級思想과 小부르조아階級思想 및 反駁스主義的思想은 아직은 長期間 존재할 것이다. 社會主義制度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基本的으로 수립되었다. 우리는 生產手段所有別의 改造面에서는 이미 基本的인 승리를 달성했으나 政治路線과 思想戰線의 面에서는

(122) J. Stalin, *Fragen des Leninismus*, 1955, Berlin (Diez Verlag), S. 44.

(123) 《毛澤東選集》(中文版), 第5卷, 1977年, 北京, p. 366.

(124) *Ibid.*, p. 389.

(125) *Ibid.*, p. 390.

아직 完全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했다. 意識形態의 面에서는 프롤레타리아階級과 부르조아階級간의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하는 問題는 아직 정말로는 해결되지 못했다. 우리는 계속 부르조아階級思想 및 小부르조아階級思想과 長期間 鬪爭해야 한다. …일체의 그릇된 思想…에 대해서는 모조리 批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批判은 亂暴하게, 官僚主義의 으로 教條主義의으로 할 것이 아니라 充分히 事理를 言하고 分析을 加하면서 說得力있게 해야 한다⁽¹²⁶⁾.

우리는 위에서 分析한 金日成의 階級鬪爭論의 內容이 이상의 毛澤東의 觀點의 復寫版임을 간취할 수 있다. 生產手段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끝낸 후 이데올로기面에서의 階級鬪爭을 강조하고 있던 毛澤東은 1958年 여름부터 성급하게 大躍進과 人民公社運動을 강행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黨內批判勢力은 〈右派〉, 〈부르조아修正主義者〉로 몰려 階級鬪爭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毛澤東의 大躍進一人民公社運動은 파국으로 끝났고, 그는 1959年 9月 國家主席의 자리를 劉少奇에 이양한 후 第2線에 물려 앉았다. 이후 毛澤東은 劉少奇—鄧小平 등 現實主義的 調整政策을 資本主義路線으로 단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階級鬪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1966年 여름부터의 文化革命으로 개막되었다. 그런데 毛澤東은 1962年 1月부터 《擴大中央工作會議에서의 講話》, 《北戴河의 中央工作會議에서의 講話》, 《黨八期十中全會에서의 講話》등을 통해 社會主義社會에서의 階級鬪爭과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에 대한 理論的 方向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 때에 다시 그는 反動階級의 殘存勢力を 경시하면 안되어 계속하여 鬪爭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社會主義의 段階全體에 걸쳐 階級과 鬪級階爭은 存在하고 있으며, 이 鬪級裁爭은 長期에 걸친 복잡한 것이오, 때로는 대단히 격렬하기까지 하다. 우리의 獨裁의 道具를 弱化시킬 수는 없으며 역시 強化하여야 한다〉⁽¹²⁷⁾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修正主義〉에로의 變質을例로 들어 〈階級은 長期間에 걸쳐 존재하며 階級과 階級과의 鬪爭도 長期間에 걸쳐 存在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反動階級은 부활할지도 모르며 따라서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¹²⁸⁾고 하면서 大衆과 幹

(126) *Ibid.*, p. 417.

(127) 東京大學近代中國史研究會譯《毛澤東思想萬歲》(下) 1976, p. 22.

(128) *Ibid.*, p. 51.

部의 教育을 역설했다. 이상 일련의 《講話》에서 그가 부단히 제기한 것은 階級鬪爭의 問題, 修正主義와 부르조아思想의 鬪爭의 문제였다.

金日成의 階級鬪爭의 理論은 이상과 같은 毛澤東의 發言을 너무나 닮고 있다. 다만 毛澤東은 1957年에 〈나自身에게도 이전에는 여러가지 非맑스主義의 인思想이 있었다. 맑스主義는 후에 받아 들인 것이다. 나는 册에서 맑스主義를 좀 배우고 自己의 思想을 初步的으로 改造하였다. 그러나 主로는 역시 長期的인 階級鬪爭에서 改造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學習하여야만 좀 더 進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뒤 떨어지게 될 것이다〉⁽¹²⁹⁾라고 表面上으로나마 겸손을 표명할 줄 알았다. 그러나 金日成은 그런 말을 암시한 일조차 없다. 北韓의 黨宣傳員들은 그가 10代少年 때부터 탁월한 맑스主義理論家요 革命家였으며 그 뒤로는 이미 완벽하게 完成된 최후의 真理를 갈파해 온 神의 存在로 묘사해 왔다. 다음으로 毛澤東은 中國에서 強大한 社會主義經濟를 建設하려면 〈50年으로는 안 되고 百年 또는 그 以上的 많은 時間이 걸릴 것이다……世界의 가장 앞선 濟本主義나라들을 따라 잡고, 앞서려면 百年이상의 時間이 걸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¹³⁰⁾고 비교적 正直하게 過渡期를 길게 잡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金日成은 北韓에서 共產主義를 실현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將來의 일〉이라고 허황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해왔던 것이다.

金日成의 過渡期理論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社會主義制度가 수립된 다음에도 社會主義를 건설하고 共產主義에로 移行하기 위해 革命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繼續革命論이다. 繼續革命이란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의 〈偉業〉을 달성할 때까지는 革命에 中斷이 있을 수 없고 鬪命革爭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要約된다. 그리하여 反帝·反封建的 民主革命이 끝난 다음에는 지체없이 社會主義革命으로 移行하여야 하고, 社會主義革命이 승리하여 社會主義制度가 수립된 다음에는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無階級社會의 實現)를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強化하고 무엇보다도 思想革命을 철저히 수행하여 全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社會的生產力を 높이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技術革命과 文化革命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말한다.

(129) 《毛澤東選集》, 第5卷, 前揭版, p.382.

(130) 《毛澤東思想萬歲》, 前揭版, pp.27~28.

어떤 사람들은 낡은 社會制度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社會制度를 세우는 것만 革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思想·技術·文化分野에서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革命입니다. 그러므로 思想革命·技術革命·文化革命도 반드시 낡고 침체한 것과의 戰爭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思想革命은 결함있는 사람 자체를 반대하고 목을 떼는 戰爭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낡은 思想을 뿌리빼고 사람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기 위한 戰爭입니다. 技術革命은 낡은 技術을 새 技術로 바꾸고 손勞動을 機械化, 半自動化, 自動化하기 위한 戰爭입니다. 文化革命은 勤勞者들의 文化技術水準을 높이며 生產文化와 生活文化를 세우기 위한 戰爭입니다.⁽¹³¹⁾

그는 共產主義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要塞, 즉 思想的 要塞(共產主義意識)와 物質的 要塞(높은 生產力과 生活水準)를 占領하여야 한다는 것을 빈번히 강조해 왔다. 그의 說明은 다음과 같다.

共產主義를 건설하려면 經濟와 文化, 思想과 道德의 모든 分野에 걸쳐 社會를 共產主義의으로 改造하여 共產主義의 思想의 要塞와 物質的 要塞를 占領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社會의 모든 成員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여 共產主義의 人間으로 만들며 生產手段에 대한 單一한 共產主義의 所有를 확립하고 需要에 의한 分配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生產力を 높이 發展시켜야 합니다. 共產主義의 思想의 要塞와 物質的 要塞를 占領하기 위해서는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思想, 技術, 文化的 3大革命은 社會主義가 선 다음 勞動階級의 黨이 수행하여야 할 繼續革命의 課題입니다.⁽¹³²⁾

社會主義制度가 수립된 이후의 時期에 있어서의 繼續革命論은 金日成의 獨創이 아니며 그가 毛澤東으로부터 받아 들여 自己의 것으로 제시한 觀點이다. 中共에서 繼續革命論이 크게 강조된 것은 生產手段의 社會主義의 改造가 끝나고 大躍進運動이 시작되려던 1958年 봄부터의 일이다. 당시는 繼

(131) 《김일성저작선집》6, 前掲版, p. 421.

(132) 《김일성저작선집》7, 1978년, 평양, p. 217.

續革命이란 用語대신 <不斷革命>이라는 用語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것을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繼續革命이라는 말로 바꾸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內容은 同一하다. 金日成도 中共을 따라가면서 不斷革命이란 말을 사용하다가 이것을 繼續革命이란 用語로 바꾼 것은 注目할 만 하다.⁽¹³³⁾ 그런데 1958年 1月28~30日 毛澤東은 最高國務會議에서 한가지 革命이 끝나면 또 한가지의 革命을 시작하여 革命을 계속 前進시켜야 한다고 不斷革命을 강조한 바 있다. <쇠는 달았을 동안에 두들기는 것이오> 中間에 冷却期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訓示했다.⁽¹³⁴⁾

毛澤東의 訓示를 받들어 劉少奇는 1958年 5月 5日 中國共產黨 제 8期 全國代表大會 제 2次會議의 報告에서 毛澤東이 中國의 革命을 不斷革命의 理論으로 지도했다고 解明했다. 그리고 所有制의 面에서 社會主義的 改造가 기본적으로 完了하자 黨中央委員會는 思想戰線과 政治戰線에서의 社會主義革命을 제기하고 그것을 수행해 왔다고 하고 그 때에 제기된 것이 <技術革命>과 <文化革命>이라고 설명했다.⁽¹³⁵⁾

毛澤東의 繼續革命論은 文化大革命期에 劉少奇—鄧小平 등 <부르죠아修正主義者들>에 대한 權力鬭爭에서 더욱 강조되었고, 이 용어는 文革이 끝난 뒤 1969年 4月에 改正된 黨規約에 삽입되었다가 1975年 憲法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下의 繼續革命>으로 公式化되었다. 毛澤東이 死亡한 후 그의 後繼者로 등장한 華國鋒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下에 革命을 끝까지 繼續하자고 강조했고⁽¹³⁶⁾ 1978年 다시 改正한 憲法에서도 繼續革命의 路線은 그대로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毛澤東이 格下되고 劉少奇의 名譽回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文革受益派 華國鋒은 文革被害派 鄧小平에 의하여 去勢되고 있다. 앞으로 中國 憲法은 다시 改正될 것이지만 여기서 毛澤東의 繼續革命論은 文化大革命과 더불어 삭제될 것은 틀림없다. 中共의 文獻과 金日成의 著作들

(133) 北韓에서 <不斷革命>을 毛澤東式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58年경 부터다. 金日成은 千里馬運動이 사실상 시작되고 있던 1958年 11月 20日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不斷革命을 體系的으로 說明하였다. (《김일성 선집》 6, 1960년, 평양, pp. 135~143) 그런데 《김일성저작선집》 2, (1968년 평양), p. 264에서는 <不斷革命>이 <繼續革命>으로 改作되어 있다.

(134) *Mao Tse-tung Unrehearsed—Talks and Letters: 1956~71* edited by Stuart Schram (Pelican Books), p. 94.

(135) 《劉少奇主要著作集》第4卷(三一書房版), 1960, pp. 151~152.

(136) Hua Kuo-feng, "Continue the Revolution under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to the End", *Peking Review*, No. 19, 1977, pp. 15~18 참조.

을 比較分析할 때 金日成의 繼續革命論과 그 基本內容으로서의 3大革命論 (137)은 用語만을 部分的으로 달리 할뿐 (138) 毛澤東의 주장을 뒤따라 가며 復唱해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金日成의 技術革命과 文化革命은 優先대 北韓社會의 經濟的 落後性과 文化的 後進性을 극복하자는 데 그 目的이 있다. 그는 北韓이 〈資本主義革命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生產力이 매우 뒤떨어져 있으며 勞動階級과 農民간의 差異는 社會主義革命을 한 다음에도 매우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는 것〉⁽¹³⁹⁾이 라는前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前提는 물론 옳다. 이러한前提로부터 그는 〈資本主義를 正常的으로 거치지 못한 만큼 資本主義下에서 마땅히 해결하였어야 할 生產力發展의 課業을 오늘 우리 社會主義時代에 와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⁴⁰⁾는 歷史的 임무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는 資本主義革命을 거치지 못하였다고 해서 北韓社會를 資本主義化하여 資本家를 일부러 길러 가지고 그것을 떠려 부순 다음 다시 社會主義를 건설할 必要는 없다고 資本主義段階를 뛰어 넘을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政權을 잡은 勞動階級, 즉 共產黨은 〈資本主義革命段階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任務를 社會主義制度 밑에서 수행하여야 한다〉⁽¹⁴¹⁾고 주장한다.

그의 方式은 古典的 막스主義의 理論과는 全的으로 어긋나는 것이지만 베닌과 스탈린, 毛澤東의 그것과는 完全히 一致한다. 여기서 우리는 現代共產主義가 獨裁權力を 무기로 하여 위로부터 產業革命을 이룩하려는 近代化의 한 方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資本의 始源的 蕩積이 없고, 技術水準이 낮고, 私的 利潤의 자극이 없는 곳에서, 그 위에 急速히 產業革命을 추진하려면 人的 資源의 人海戰術의 動員과, 社會의 戰時的 編制화와 大衆의 勞

(137) 金日成의思想, 技術, 文化的 3大革命에 관해서는 筆者の論文 〈3大革命의 源流와 展開〉, 《北韓學報》第1輯(1977年)에서 비교적 자세히 分析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再論을避하기로 한다.

(138) 中共에서는 〈思想革命〉이란 用語대신 〈整風〉, 〈社會主義教育運動〉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리고 1963년 5月 9日 毛澤東은 農村에서의 階級鬭爭에 力點을 두면서 階級鬭爭·生產鬭爭·科學實驗에의 參加를 教示하면서 이것을 〈3大革命運動〉이라고 불렀는데, 그 本質的內容은 金日成의 〈3大革命〉과 거의 同一하다. 또한 毛澤東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下의 繼續革命〉이라는 定式을 내세운 데 대해 金日成은 〈社會主義制度가 선 다음의 繼續革命〉이라는 定式을 내세웠다. 물론 理論的 구조는 꼭 같다.

(139)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前揭版, p. 408.

(140) Ibid.

(141) Ibid., pp. 408~409.

動의 최대한 염출, 그리고 反抗分子들에 대해서는 〈階級鬪爭〉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手段으로 이것을 强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 大衆의 自發的 혁신과 創造力과 革命的 热意가 없이는 소기의 目的 을 달성할 수 없다. 여기에서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强化, 즉 思想革命의 必要性이 絶對的으로 요구된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모든 사람들을 共產主義思想으로 철저히 改造하지 않고서는 共產主義의 物質的 要塞도 점령할 수 없으며 共產主義社會를 完全히 建設할 수 없다〉⁽¹⁴²⁾고 思想革命의 優位, 政治先行主義를 부단히 강조하고 强行해 온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黨의 指導〉, 즉 黨의 엄중한 統制, 다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强化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金日成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民主主義的側面을 항상 강조하면서 北韓의 勤勞大衆은 真正한 自由와 權利와 행복한 物質的・文化的 生活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르조아民主主義는 少數의 摧取階級 사이에서만 民主主義요 多數인 勤勞階級에 대해서는 가혹한 獨裁를 실시하는 데 대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少數의 摧取階級과 그 殘餘分子들에 대해서는 獨裁를 실시하지만, 모든 勤勞人民들에 대해서는 民主主義를 실시한다는 것이 鐵幕 以來의 圖式的 見解다. 즉, 共產主義者들은 부르조아民主主義란 곧 부르조아獨裁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곧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라는 主張으로써 民主主義와 獨裁를相反되는 것으로 보는 傳統的 認識을 거부하면서 1黨獨裁, 나아가서는 1人獨裁를 옹호한다. 金日成도 그의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論을 그러한 方向 으로 전개하는 데 애쓰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少數敵對分子들에 대해서는 鎮壓하고 勤勞階級 과 農民을 비롯한 絶對多數의 근로인민들에게는 民主主義를 실시합니다. 프롤레타리아獨裁의 이 두側面을 끊임없이 結合하여 나간다는 것은 絶對多數의 人民大衆을 教育改造하여 團結시키는 사업과 극소수의 敵對分子들의 隊謀策動을 反對하는 階級鬪爭을 결합시켜 나간다는 것을 意味합니다.⁽¹⁴³⁾

스탈린, 흐루시쵸프, 東歐의 共產主義者들이 각각 相異한 條件에서 相異한 의미로 사용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社會民主主義와는 엄밀히 區別되

(142) *Ibid.*, p. 264.

(143) 《김일성저작선집》5, 前揭版, p. 169.

고 있음)를 金日成은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와 同一視하면서 1977年 12月 5日 最高人民會議에서 자기의 民主主義論을 폈다. 여기서 그는 부르조아民主主義는 少數를 위한 《民主主義》요, 그것은 本來의 意味에서의 民主主義가 아니라고 그 虛偽性을 다음과 같이 규탄하고 있다.

資本主義社會에서 勤勞人民大衆에게는 절대로 民主主義의 自由와 權利가 없읍니다. … 國家의 모든 權力과 生產手段이 少數資本家의 손안에 들어있고 돈이 모든 것을 決定하는 資本主義社會에서 億萬長者들과 가난한 勤勞者들 사이에 어떻게 平等이 있을 수 있으며 억압당하고 摧取당하는 勤勞人民들에게 무슨 自由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帝國主義者들이 떠드는 《民主主義》는 가짜 民主主義이며, 그들이 들고 나온 《平等》이니 《自由》니 하는 것들은 모두 勤勞人民大衆을 기만하며 부르조아獨裁의 反動性과 資本主義體制의 反人民的 本質을 가리기 위한 偽裝物에 지나지 않습니다. ⁽¹⁴⁴⁾

그렇다면, 資本主義도 未發達상태에 있고 부르조아民主主義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第3世界의 많은 나라들은 論外로 하고라도, 西歐와 北歐諸國, 美國과 日本과 이스라엘等의 모든 〈부르조아民主主義〉國家들에 있어서는 民主主義國家란 偽裝이오, 사실은 勤勞大衆에 대한 가혹한 抑壓과 摧取만이 지배하는 少數資本家들의 獨裁國家여야 한다. 그는 이러한 나라들의 〈부르조아民主主義는 億萬長者들에게 勤勞者들을 마음대로 摧取하고 略奪하여 치부하며 그들을 억압할 自由를 주지만 勤勞大衆에게는 헐벗고 露어죽을 自由밖에 주지 않는다〉⁽¹⁴⁵⁾고 비방한다. 그의 이와 같은 極端的政治비방에 대해서는 여기서 새삼 論議의 對象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그가 이러한 비방으로 응호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 즉 社會主義의 民主主義다.

그에 의하면 〈民主主義란 한마디로 말하여 勤勞人民大衆의 意思를 集大成한 政治〉요, 다시 말하면 〈國家가 勤勞者, 農民을 비롯한 광범한 勤勞人民들의 意思에 따라 政策을 세우고 人民大衆의 利益에 맞게 그것을 貫徹하며

(144) 《김일성저작선집》7, 前揭版, p. 434.

(145) 《김일성저작선집》5, 前揭版, p. 170.

勤勞人民大衆에게 참다운 自由와 權利, 幸福한 生活을 실질적으로 保障하여 주는 것이 바로 民主主義⁽¹⁴⁶⁾라고 그는 民主主義의 原理를 가르친다. 따라서 <勤勞人民의 利益을 떠나서 少數特權階層의 利益을 옹호하는 政治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民主主義로 될 수 없다>고 하면서 <世上에 참다운 民主主義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勤勞大衆을 위한 民主主義, 즉 社會主義의 民主主義⁽¹⁴⁷⁾라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真正한 民主主義는 勤勞人民大衆이 國家와 社會의 主人으로 되고 있는 社會主義社會에서만 實現될 수 있다>⁽¹⁴⁸⁾고 그는 斷言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理想的인 社會主義의 民주主義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金日成은 北韓이 바로 그런 나라라고 自負한다. 그는 첫째로 北韓의 自由와 權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勤勞者들은 나라의 主人으로서 國家管理에 적극 參加하고 있으며 性別과 職業, 財產과 知識程度, 政見과 思想에 관계 없이 누구나 다 같은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言論, 出版, 結社, 集會를 비롯한 온갖 社會政治活動의 自由와 權利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습니다.⁽¹⁴⁹⁾

世界의 共產黨 國家 가운데서도 가장 閉鎖的이오 劃一的인 全體主義兵營社會를 만들어 놓고 30년 이상이나 1人獨裁를 자행해 온 그는 위에서 自己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北韓에서 施行되고 있는 社會主義의 民主主義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内容으로 보아 바로 그가 규탄하는 바, 歐美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르죠아>民主主義다. 또한 그는 北韓의 社會主義의 民主主義가 보장한다고 하는 社會的平等, 福祉制度에 있어서도 西歐先進國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는 양 말하고 있다. 즉, 北韓의 勤勞者들은 모두 <勞動과 休息의 權利>, <希望과 能力에 맞는 職業을 선택하는 權利>, <全般的인 無料義務教育制>, <無償治療制>, 全體人民들에 대한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物質的 條件>의 保障들을 그는 자부하고

(146) 《김일성저작선집》7, 前揭版, p. 433.

(147) *Ibid.*

(148) *Ibid.*, p. 434.

(149) *Ibid.*

있다.⁽¹⁵⁰⁾ 이러한 일련의 平等權을 法的으로 나열하고 制度로 形式化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규모와 量과 質, 그리고 實行上의 公平性이다. 그런데 北韓의 實情은 그의 말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1974年 北韓은 稅金全廢改革을 발표하면서 〈世界史上 처음으로 稅金이 없는 나라〉라고 宣言했다. 그러면 나라의 財政은 도대체 무엇으로 염출하는 것일까? 그가 北韓에서 保障되고 있다고 하는 社會的平等과 福祉는 現實이 아니라 希望이오 理想에 불과한 것이다.

앞에서 分析한 바와 같이 金日成에 있어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즉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와는 同一物의 兩面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강조할 때는 동시에 반드시 階級鬭爭과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강조한다. 그리하여 그는 〈社會主義的民主主義는 勤勞人民의 階級的 원수들에 대한 獨裁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그것은 침예한 階級鬭爭을 同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理由를 〈帝國主義者들과 그 앞잡이들, 전복된 階級的 원수들〉의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에 대한 비방과 파괴策動에서 求하고 있다.⁽¹⁵¹⁾ 따라서 〈社會主義國家가 民主主義秩序를 유린하고 社會主義制度를 파괴하려는 敵對分子들과 不純分子들에게制裁를 가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원수들로부터 民主主義를 지키기 위한 正當한 조치〉⁽¹⁵²⁾라고 그는 自己의 獨裁權力의 탄압정책을 합리화한다.

金日成은 自己의 意思야말로 곧 勤勞階級과 黨과 全體人民의 意思라는前提에서 自己의 路線에 批判的인 限은 黨內外의 어떤 分子들에 대해서도 〈反黨分子〉요, 〈反社會主義的〉요, 〈階級의 敵〉이라고 낙인을 찍고 階級鬭爭의 形式으로 속칭해 왔다.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 階級性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共產主義者들은 自己의 黨性을 숨기지 않는 것처럼 民主主義의 階級性도 숨기지 않습니다.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 결코 社會主義를 反對하는 敵對分子들과 人民의 利益을 침해하는 不純分子들에게까지 自由와 權利를 주는 超階級的 民主主義가 아닙니다. 勤勞者, 農民, 勤勞인 텔리를 비롯한 廣範한 人民大眾에게는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여 주고 少

(150) *Ibid.*, p. 435.

(151) *Ibid.*, p. 437.

(152) *Ibid.*, p. 438.

數의 階級的 원수들에 대하여서는 制裁를 가하는 것이 바로 社會主義의 民主主義입니다.⁽¹⁵³⁾

이와 같은 金日成의 民主主義論은 물론 客觀的이오 實證的인 分析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는 階級的 名分에서 1黨獨裁—1人獨裁의 政治體制를 強化하고 유지하기 위한 黨略의 이데올로기上 屬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에는 가후한 全體主義의 獨裁와 物質生活의 궁핍, 社會의 官僚主義의 不平等에서 由來하는 勤勞者들의 정당한 不平과 不滿이 北韓의 政治體制를 弱化시킬 것이라는 不安이 反映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勤勞者들과 黨員들의 사소한 不平과 批判, 심지어는 消極的인 추종까지도 그 原因을 〈부르죠아思想의 殘滓〉와 〈帝國主義者들의 策動〉에다 돌리면서 外部世界의 眞實을 듣고 보지 못하도록 극단적인 閉鎖政策을 강행해 왔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부르죠아民主主義〉나라들의 영향 뿐만이 아니라, 보다 開放되고 北韓보다는 自由化된 共產主義나라들의 새로운 思想的一政治的 變化過程이다. 이 나라들은 같은 맙스—레닌主義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더 큰 경계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不安을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表明하고 있다.

지금 西方帝國主義者들과 革命의 背信者들은 일부 社會主義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民主主義의 發展》과 《自由化》운동에 대하여 社會主義社會 發展의 《合法則의 過程》이라느니, 《西方世界에 希望을 안겨 주는 東歐羅巴에서의 새로운 바람》이라느니, 《加一層의 民主主義를 위한 爭取한 改造過程》이라느니 하면서 환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社會主義나라들에서 社會主義의 戰取物을 좀먹고 資本主義復舊의 걸을 열어 놓으려는 帝國主義者들과 革命의 背信者들의 어리석은 策動입니다. 우리는 社會主義나라들을 内部로부터 破壞하려는 帝國主義者들의 음모책동에 대하여 警覺心을 높혀야 합니다.⁽¹⁵⁴⁾

이제 結論을 내릴 때가 왔다.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에

(153) *Ibid.*

(154) 《김일성전집》6, 前揭版, p. 170.

관한 北韓(金日成)의 理論구성과 그 中心部分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論은 政治的으로는 1黨獨裁—1人獨裁體制의 永續化를 合理化하려는 이데올로기라는 側面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經濟·社會的으로 志向하는 바는 全體主義的 獨裁權力의 힘으로 일체의 生產手段을 國有化함으로써 生產力を 급속히 발전시켜 스탈린式 工業化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최종적 目標로는 어느 때에 到來할지 모르는, 사실은 到來할 可能性이 없는 이론바 <需要에 따라 分配를 받는다>고 하는 共產主義의 理想鄉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